



#20



KHL



# w/HOM#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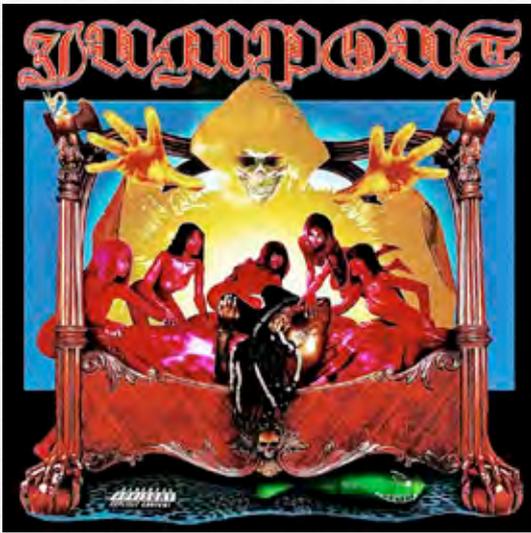
**New**

1 Jump Out 2 LOWER 3 Leaving Home 4 Permanent Ink 5 12  
6 Above & Beyond

---

---





## Jump Out

OsamaSon

2025.01.24 / 자카

오사마손(OsamaSon)이 만든 400여 개의 트랙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고 그가 체념한 듯 지은 낮이 나간 표정이 전 세계를 통해 송출되었을 때, 필자를 포함한 많은 리스너들은 그의 새로운 작업물에 관한 걱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정규 프로젝트, <Jump Out> 은 애석하게도 프로듀서 ok의 역량만을 재확인시켜 주는 작품이 되었다. "Break Da News"의 트렌디함, "I Got The Fye"의 탄탄한 베이스라인을 비롯한 많은 트랙들에서 두드러지는 그의 프로덕션은 본작의 단조로운 구성을 어느 정도 상쇄한다. 그러나 <Jump Out>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오사마손 본인의 퍼포먼스다. 그의 플로우는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보컬 역시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어 프

로듀서들이 성심성의껏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조차 제대로 얹지 못한다는 인상이다. 그렇게 <Jump Out>은 첫 문장에서 언급한 여러 외부적인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정체된 작품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오사마손의 행보는 분명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의 다음 앨범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냐에 따라 오사마손의 입지가 단단히 굳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며, 그렇기에 필자는 본작을 단순한 과도기적 작품이 아닌 — 잠시 쉬어가는 브레이크타임 정도의 작품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 LOWER

Benjamin Booker

2025.01.24 / 자카

벤자민 부커(Benjamin Booker)는 항상 거칠고 원초적인 사운드를 추구해오던 아티스트였다. 펑크, 블루스, 컨트리, 힙합을 비롯한 수많은 장르들이 섞여진 그의 음악은 항상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면모를 띠고 있었으며, 그의 매그넘 오퍼스가 된 <LOWER>에서도 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본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스타일의 확장이다. 슈게이즈, 로우파이, 트립합, 오케스트라와 그가 커리어 초기에 보여주었던 개러지 록까지, <LOWER>는 수많은 장르들이 풍부하고 절묘하게 어우러져 리스너들을 압도한다. 오프닝 트랙 "BLACK OPPTS"부터 "SPEAKING WITH THE DEAD"까지의 다섯 트랙에서 건 클럽의 사이코빌리적인 펑크 블루스 사운드가

울려 퍼지고, 프로듀서 Kenny Segal의 로우파이 프로덕션이 전면에서 드러난다. "SAME KIND OF LONELY", "SLOW DANCE IN A GAY BAR"를 비롯한 트랙들은 과한 프로덕션을 배제하고, 벤자민 부커의 테너 톤의 목소리를 주 무기로 내세워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기에 이른다. 벤자민 부커는 음악적 타협을 단 한치도 추구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렇기에 그의 7년 만의 새로운 정규 프로젝트, <LOWER>가 그의 최고작이 되었다는 사실이 필자는 다소 놀라게 느껴진다. 본작은 리스너들의 핏대를 쭈뼛 세게 만드는, 한 편의 광기 어린 남부의 고딕 영화를 보는 듯하다.



## Leaving Home

FearDorian

2025.01.31 /감상주의

이제는 밀워키나 애틀랜타, 뉴욕마저 그를 담기에 부족하다. 몬트리올, 런던, 맨체스터, 베를린, 파리, 더블린, 바르샤바, 브뤼셀, 어디로든 뺏어나간다. 단지 그가 유명해졌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가 성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봐야겠다. 투어이자, 여행이자, 독립인 것이다. 데뷔작에서의 옛된 십 대 피어도리안(FearDorian)은 지났다. 그것은 일단 성숙이며 축복이지만, 해방일 수는 없다. 과시적이고 호전적인 그의 태도에는 설렘과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있다. 물론 우리 모두 겪었거나 겪게 될 것 중 하나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일도,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는 것도 유별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작의 모든 불안정한 감정을 이모로 통치는 멍청한 짓만 벌이지 않는다면, 보편적이면서 양가적인 성장통을 입체적이고 솔직하게 그려낸 다른 인터넷 Gen-Z 스타 중에는 겨우 Quinn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것도 저크부터 로우엔드, 드릴, 저지 클럽, 플러그, 그 외 장르적 정의조차 모호한 스타일까지 다채롭게 겪어낸 양상은 전적으로 도리안만의 재능이다. 마치 신기할 정도로 각기 개성이 뚜렷한 뮤직비디오 속의 랜드마크들처럼 말이다. 지금이 무척 혼란스럽겠지만 그것은 성인식이며, 오롯이 천재만이 누릴 수 있는 스웨그다. 까짓것 얼마든지 즐겨주는 거지 뭐.



## Permenant Ink

Boldy James

2025.01.24 / moogsick

근래 과작으로 원성을 듣는 래퍼들을 보며 볼디 제임스(Boldy James)만큼 억울한 이가 또 있을까? 2020년대 들어 20장 가량의 정규 앨범을 일정한 퀄리티 이상으로 꾸준히 발매하고 있음에도, 외려 이로 인해 저평가를 당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이러한 허슬은 2025년에도 여전하여 벌써 3장의 음반을 내놓았는데, 이 중 <Permanent Ink>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그리젤다 소속에 드럼리스를 주 장르로 삼기 때문에 종종 뉴욕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고는 하나, 그의 뿌리는 분명 디트로이트이며 이 본류를 찾기 위해 디트로이트 트랩을 선보인 까닭이다. Harry Fraud와의 합작 <The Bricktionary>에서 여전히 붐뱀을 축에 둔 채 약간의 시도만 가미했다면 <Permenet Ink>는 오롯이 한 우물만을 판다. 속도감 있게 스타트를 끊은 "Permanent Ink" 이후 "Single File Line"처럼 칩멍크 소울을 접목한 곡과 대중적인 트랩의 색깔을 섞은 "Stop Signs & Yields"가 이어진다. 이 모든 트랙에서 볼디는 특유의 무감정적인 목소리로 포개어진 베이스를 하나하나 짚어 가는데, 주무대에 버금갈 정도로 안정적인 래핑을 보여주기에 새로운 옷이 꼭 맞는 듯하다. 검증된 영역을 벗어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찬사받아야 마땅할 터, 게다가 그 실험이 성공했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은가. 반드시 응당한 조명을 받아야 하는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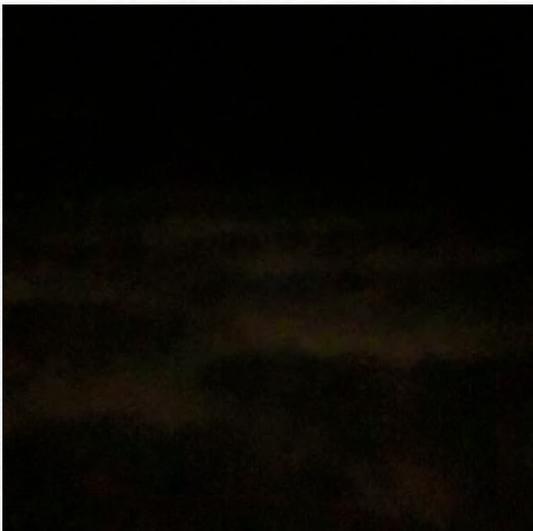


## 12

Westside Gunn

2025.02.14 / moogsick

웨스트사이드 건(Westside Gunn)이 이제 완전히 궤도로 복귀했다. 작년 다시금 기대치를 되찾은 데 이어 <12>로 올드 그리젤다를 재현한 것이다. <11>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잃은 친구 Big Dump와 버팔로의 OG Sly Green에게 헌정하는 의미를 담은 작품은 세 동료와 함께 우직하게 정도를 걷는다. Stove God Cooks, Estee Nack, 그리고 <Still Praying>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Brother Tom Sos 까지, 최근 절정의 폼을 달리는 래퍼들이 모인 사실상의 4자 협업이다. "BOSWELL", "ADAM PAGE"처럼 묵직한 붐뱁과 "VEERT", "BURY ME WITH A STOVE"의 드럼리스 사이 수놓은 가스펠 샘플 "055"와 킬링 트랙 "OUTLANDER" 등 가히 그리젤다 종합 세트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지경이다. 각각 볼륨과 샘플 운용 면에서 상당히 비전형적이었던 지난 두 앨범에서 아쉬움을 느꼈을 팬들의 수요를 채우기 충분한 음반이다. 특히 감정을 뒤흔드는 소울 샘플 사이로 떠난 동료들을 추모하며 Sly Green의 재판 과정을 묘사하는 엔딩 "DUMP WORLD"가 그리젤다의 최대 매력을 투사한다. 갱스터 랩이 설 자리를 잃은 오늘날 조금씩 흔들릴지언정 결국 정도를 걷는 이들의 또 다른 수작, 어느 올드 팬이 이 작품을 마다하겠는가.



## Above & Beyond

jackzebra

2025.02.14 / SONGCHICO

중국 국적의 아티스트로는 이례적으로 Drain Gang과 Yung Lean이 속했던 Year0001과 계약을 성사시킨 Bloodz Boi, 그는 팬이라며 연락을 보낸 한 래퍼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건넸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볼 것.', '영어보다는 중국어로 가사를 쓰는 것이 낫다.', '값싼 장비로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조언을 양분 삼아 플렉앤비 씬의 팬들에게 'Chinese Bladee'로 각인된 Bloodz Boi의 제자가 바로 본작의 주인공, 잭지브라(jackzebra)이다. 출세작 <jack1888 mixtape> 이후로 줄곧 짧은 볼륨의 음악에 집중해오던 그는, 피치포크에 소개된 <王中王>에 이어 다시금 1시간이 넘는 풀-렝스 앨범을 들고 왔다. 하지만 본작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띤다. 초반부는 그의 기존 스타일처럼 자극적인 신스와 쿵쾅대는 베이스로 가득 차 있지만, 점차 뉴에이지 혹은 엠비언트 팝을 연상시키는 악기 배열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약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용한 음악' 속에서도 잭지브라는 독특한 샘플을 가미하고 톤을 바꿔 멜로디를 만들어가며 이 분위기를 주도한다. 플러그 래퍼로서 얻은 하이프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정도 건재함을 증명했다. 잭지브라는 '장르의 이방인'을 넘어 예술적 성취를 이루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음악적 확장이며, 'Chinese Bladee'라는 별칭에 더욱 어울리는 행보이다.

# w/HOM#20



**Full**

1 BLACK!ANTIQUÉ 2 Hurry Up Tomorrow 3 Lay Low 4 Showbiz! 5 Life Is Beautiful 6 \$ome \$exy \$ongs 4 U



**BLACK****|****ANTIQUÉ****BLACK!ANTIQUE - Pink****Siffu**

2024.01.27 / 자카

1. BLACK!ANTIQUE! (feat. Elheist & Apollo Rome) / 2. ALIVE & DIRECT! (feat. Elheist & Ss.Sylver) / 3. 1:1[FKDUP. BEZEL] (feat. Conquest Tony Phillips, Bbymutha & Elheist) / 4. V12!HML! (feat. Conquest Tony Phillips & Liv.e) / 5. [Sacrifice]BonAppétit (feat. Mother MaryGold, HO9909 & B L A C K I E) / 6. SCREW4LIFE! RIPJALEN! / 7. 4DOE[47] / 8. WHOUWITHHO+ (feat. Kal Banx) / 9. TRANSLATION! (feat. Turich Benjy, Tyah & CRYSTALLMESS) / 10. Girls Fall Out Tha Sky (feat. Turich Benjy, 454 & Jaas) / 11. PSA! (feat. Vayda) / 12. FACECARD! (feat. HiTech, Peso Gordon, GDMRW & Ss.Sylver) / 13. LOCKED IN! (feat. WiFiGawd) / 14. U.ALREADY! (feat. Prjr & Pearl De Luna) / 15. OUTSIDE! (feat. monte booker & V.C.R) / 16. SleepAtTheWheel! (feat. Big Rube) / 17. LAST ONE ALIVE! / 18. 8) (feat. Jack Davey, Ss.Sylver & Aaliyah & Azul) / 19. BLACKWATER! (feat. Big Rube)



**굉장한** 작품이라는 것은 알겠다. 버밍햄 출신의 언더그라운드 래퍼 핑크 시푸(Pink Siffu)의 3번째 솔로 프로젝트, <BLACK!ANTIQUE>는 지금껏 그가 보여준 모든 음악들이 그 질서 따위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듯이 거대하게 뭉쳐져 있다. 블랙 아메리카를 향한 그의 편집증적인 고백들과 <NEGRO>의 질주하는 랩-펑크, <GUMBO>와 <Leather Blvd.>의 몽환적인 소울 음악, 그리고 최근 HiTech와 손을 잡고 제작된 남부 트랩 뱅어들까지. 77분이라는 기나긴 러닝타임 속에서, 핑크 시푸 본인의 그득그득한 욕심으로 뒤엉킨 이 음악들은 의외로 나름의 응집력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운영된다.

결과적으로 <BLACK!ANTIQUE>는 핑크 시푸가 지금껏 탐구해 온 음악들을 총망라한 작품이지만, 그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엮이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앨범의 전반부는 이를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구현해 내었다. 여러 장르들이 혼란스럽게 융합되며 강렬한 추진력과 함께 전개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운드들이 핑크 시푸의 외침과 함께 거칠고 생생하게 살아 숨 쉰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긴장감은 점차 희미해지며, 균형을 이루던 음악들이 끝내 뿔뿔이 흩어지며 흐릿한 잔상만을 남긴다는 것이다. <BLACK!ANTIQUE>를 핑크 시푸 커리어의 변곡점과도 같은 작품이라고 칭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본작은 그가 가진 음악적 야망과 한계를 모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대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을지언정, 본작을 통해 이 독창적인 래퍼의 순간적인 충동이 이제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이 한층 더 분명해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사실, <BLACK!ANTIQUE>와 같은 음반들의 퀄리티가 끝까지 유지되기란 어려운 일일 테다. 이 정도로 방대한 볼륨의, 나아가 자신의 모든 역량을 한데 쏟아부은 작품들은 되려 러닝타임이 길어질수록 집중력을 잃기 쉽게 되고, 결국 흐릿한 인상만을 남긴 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BLACK!ANTIQUE> 역시 전반부는 흥미롭고 맹렬하게 진행된다. 인트로 트랙 "BLACK!ANTIQUE!"는 거친 노이즈와 비정형적인 텍스처로 시작되며, 이후 날카로운 인더스트리얼 비트 위에서 핑크 시푸의 날선 래핑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등장하는 "ALIVE & DIRECT!", "1:1[FKDUP.BEZEL]"와 같은 트랙들에서도 그의 포효는 다채롭게 왜곡된 비트와 혼합되며, 본인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에 이른다.

<BLACK!ANTIQUE>는 "SCREW4LIFE! RIPJALEN!" 이후로 점차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핑크 시푸는 보사노바, 클라우드 랩, 어두운 트랩을 비롯한 다채로운 스타일을 전환적으로 배치하며, 전형적인 핑크 시푸의 스타일인 몽환적이고 추상적인 스타일의 음악이 앨범의 주된 무드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BLACK!ANTIQUE>는 그 순간 본연의 힘을 모두 잃게 된다.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곡들의 길이는 한없이 짧아지며, 사운드도 단순해지며 고요해진다. 핑크 시푸는 의도적으로 앨범의 텍스처와 밀도를 조절하며 긴 러닝타임을 다채롭게 구성시켜보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본작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비해 명확한 방향성을 잃은 채 흘러간다.





## Hurry Up Tomorrow - The Weeknd

2025.01.31 / SRUK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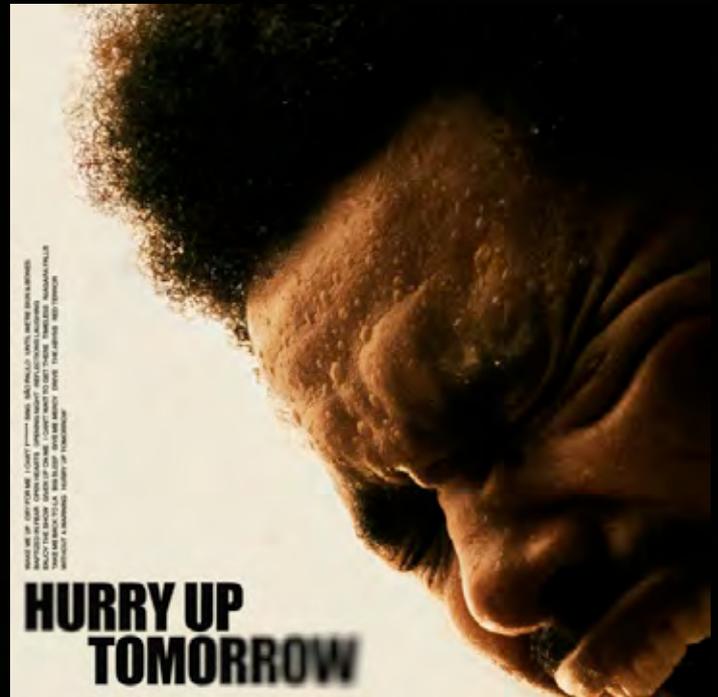
1. Wake Me Up w/ Justice / 2. Cry For Me / 3. I Can't Fucking Sing /  
4. São Paulo w/ Anitta / 5. Until We're Skin & Bones / 6. Baptized In  
Fear / 7. Open Hearts / 8. Opening Night / 9. Reflections Laughing w/  
Travis Scott & Florence + the Machine / 10. Enjoy The Show w/ Future  
/ 11. Given Up On Me / 12. I Can't Wait To Get There / 13. Timeless  
w/ Playboi Carti / 14. Niagara Falls / 15. Take Me Back To LA / 16. Big  
Sleep w/ Giorgio Moroder / 17. Give Me Mercy / 18. Drive / 19. The  
Abyss w/ Lana Del Rey / 20. Red Terror / 21. Without a Warning / 22.  
Hurry Up Tomorrow

↳ 구도 부정할 수 없는 21세기 최고의 슈퍼스타, 더 위켄드 (The Weeknd)의 고별전. 상업성과 예술성 모두를 훌륭히 잡아냈던 그가 '최후'라는 수식어에 잡아먹혀 길을 잃은 것일까? <Hurry Up Tomorrow>가 취하고 있는 모양새는 어딘가 애매하다. 그의 정점 <After Hours>에서 선보인 어둡고 축축한 자기혐오와 폭력성, 이를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빌런 축조. <Dawn FM>에서는 컨셉추얼한 방식을 조금 더 활용하여 — 대놓고 라디오 채널을 표방하는 앨범명처럼 — 아티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하지만 트릴로지, 동시에 더 위켄드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본작은 장황한 연출만 파뻗거리는 눈요깃거리에 불과할 뿐이다.

유효하게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1시간 24분의 러닝타임은 거창하게만 느껴진다. 공개될 영화의 사운드트랙임을 감안한다 해도 마찬가지. <Hurry Up Tomorrow>를 단순히 영화 제작자 Abel의 새로운 도약이라 여기면 편리하겠지만, 위켄드 명의로서의 마지막 음반임을 감안한다면 아쉽게 느껴진다. 주제의식 또한 동어반복에 그친다. 이전 디스코그래피에서 끊임없이 다뤄왔던 성공이면의 공허함, 관계에서 기인한 상실감. 그 외에 뜬어볼만한 깊이 있는 통찰은 '마지막'이라는 개념을 강조할 뿐, 이마저 웅장한 신스에 파묻혀 의미를 잃어간다.

앨범의 초반부는 꽤 흥미롭다. Justice와 함께 한 "Wake Me Up"은 말 그대로 장엄한 최후에 걸맞은 스타트를 끊는다. 묵직한 베이스 신스로 중심을 잡고,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떠오르는 리드 신스와 스트링 세션 활용은 <Dawn FM>에서의 성공적인 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동시에 — 본작에 대한 서사적 긴장감을 형성하여 리스너들을 절로 엄숙하게 만든다. Michael Jackson의 <Thriller>를 Justice 스타일로 흥미롭게 재해석했다는 인상까지 드는 흥미로운 도약, 이후 특유의 트랜지션으로 전개되는 "Cry For Me"는 <Hurry Up Tomorrow>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다. 과거·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Metro Boomin의 드럼 텍스처 디자인과 Mike Dean의 끈적한 아날로그 신스메이킹 — 이 검증된 조합은 탁월한 시너지를 일으키며, 더 위켄드를 라틴·트랩 그 어느 비트에서든지 뒤흔게 만든다. 싱글 공개 당시 처참한 완성도의 곡으로 느껴졌던 "Sao Paulo"는 곧바로 바통을 넘겨받아 앨범을 서서히 과열시키는 역할을 의외로 꽤 잘 소화해낸다.

사실상 비장의 무기였던 "Open Hearts"는 여전히 건재한 Max Martin의 프로듀싱 내공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Blinding Lights", "Take My Breath"의 계보를 이을만한 대중적인 트랙이다. 코러스에서 달궈진 신스들이 포스트 코러스에서 일제히 폭발할 때 느껴지는 감흥, 이 감흥을 벌스로 넘어가며 서서히 식히고, 다시 같은 구간에서 폭발하게 만드는 완급 조절은 가히 탁월하다. 하지만 이 트랙을 기점으로 <Hurry Up Tomorrow>는 급격히 고꾸라진다. 특히 중반부는 아예 들어내도 무방할 정도로 앨범 범을 늘어지게 만든다. "Timeless", "Enjoy The Show"와 같은 기량 미달의 트랙들을 굳이 옥여넣는 모습은 그답지 않은 판단으로, 분위기를 어느 정도 환기해 줄 수 있었던 앨범의 리드 싱글 "Dancing in the Flames"가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 불운하게도 누락된 점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말 그의 말처럼 아티스트로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일종의 영감이 고갈된 걸까? 후반부로 달려갈수록 그도, 우리도 점점 지쳐간다. "Niagara Falls"부터 이어지는 <After Hours>의 열화판 흐름은 그나마 중반부에 비해 나쁘지 않다. 후회를 일삼으며 죽음을 받아들이고, 본작의 주제에 걸맞게 재탄생(Rebirth)을 준비하는 더 위켄드의 심리에 감정적으로 부응하게 만든다. 특히 <After Hours>의 "Escape From LA" 서사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Take Me Back To LA"는 그의 팬이라면 여러 감정이 교차할 만한 트랙. 이 장대한 길티 플래저의 대서사시가 "Hurry Up Tomorrow"에서 <House Of Balloons>의 1번 트랙 "High For This"로 회귀하며 비극적으로 마무리될 때, 우리는 아티스트가 축조한 거대한 스토리라인에 감복하는 동시에 이 거대한 장례식에 끝까지 참석한 자신에게 되려 감탄하게 된다.

<Hurry Up Tomorrow>는 성공한 앨범이다. 슈퍼스타로서의 화려한 피날레 — 정해진 목적을 화려하게 달성한 동시에, 스토리텔러 Abel의 능력이 트릴로지 내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한 사례이다. 그의 오랜 팬들에게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풍성함.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스토리텔링에도 불구하고, 더 위켄드로서 보여줬던 모든 음악 스타일과 주제 의식까지 모두 녹여내야 한다는 압박에 지나치게 비대해져버린 결과물이기도 하다. 9번부터 13번 트랙, 그리고 후반부의 몇몇 트랙만 도려냈으면 어땠을까. <After Hours>는 강렬함, <Dawn FM>은 해방감을 남겼다면, 무딘 날의 <Hurry Up Tomorrow>는 몇몇 순간들을 제외하고서는 애매함과 흐릿함을 남긴다.

LAY

LOW

## Lay Low - Eddie Chacon

2025.01.31 / 감상주의

1. Good Sun / 2. Let You Go / 3. Empire / 4. Lay Low / 5. Birds / 6. Let The Devil In / 7. End Of The World / 8. If I Ever Let You Go

Charles & Eddies의 “Would I Lie to You?”가 60~70년대가 아닌 90년대 히트곡이었다는 사실을 우선 떠올린다. 네오 소울이 아니면 컨템포러리 알앤비로 정리돼오던 주류 시장에서 간만에 들리던 모타운의 소리는, 그 당시에도 충분히 복고적인 것이었을 테다. 특유의 경쾌함과 산뜻함이 디스코에 의한 것이 아닌, 진득한 펑크와 소울 — 팔세토와 가스펠 코러스로 말미암은 — 에 의한 것이었던 초기 모타운 말이다. 그들이 레이블과 갈등을 겪지 않으며, 레트로 현상의 반신이었던 Charles Pettigrew가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다음 세기의 알앤비 씬이 실제와 얼마나 다른 세상이었을지에 대해 잠시나마 상상해 본다.

홀로 남겨진 또 다른 반신, 에디 차콘(Eddie Chacon)은 한동안 음악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긴 침묵 속에 사라지기도 했다. 이때의 그에게 클럽과 온라인, 얼터너티브로 말미암은 시대적 파도에 밀려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던 필라델피아/스무스 소울(이하 스무스 소울로 통칭 — 물론 편의상)의 처지가 겹쳐 보인다. 그러나 그는 돌아왔다. 인고의 세월을 거쳤을 뿐, 그의 미학과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드디어 깨달았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거의 20년이 지나 등장한 첫 솔로 앨범 <Pleasure, Joy and Happiness>는 가치의 부활과 성숙, 그리고 구원을 상징한다.



하지만 약간의 변화가 이탈이 아닌 확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그 변화가 역설적으로 변함없는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몽롱함으로 하여금 차곤을 더욱 스스로의 안으로 밀어 넣어 그 무게감 속에서 성찰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며 더욱 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때 스무스 소울의 흐름에도 빗낼 수 있다. 커머셜하고 감미로운 발라드의 형식을 띠며, 소울과 알앤비 간의 첫 가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스무스 소울의 시작이었다. 그러다가 깊고 농밀한 내면의 성찰 및 감정 전달로 하여금, 소울 본연의 가치에 점차 충실하려는 일부 근본주의자들이 반대급부로 성장해 갔다. 오늘날에 재건을 시도하고 있는 차곤과 Hakim의 손에서도, 그러한 발전 양상을 재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가 좇고 있는 진정한 본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네오 소울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나 그의 클래식과 영광은 재차 강조하건대 그보다 더 앞선 곳에 있다. 즉, 근본주의를 어떠한 성질을 통해 구성하느냐에 있다. 일단 밀도와 농도는 과거를 계승하려는 모든 소울 무브먼트가 공통적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스무스 소울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은 결국 온도와 속도다. 부드러움이란 바로 이 두가지로 결정된다. 떠나신 어머니를 그리기 때도, 상심을 노래할 때도, 모진 악과 비극적인 세상의 끝자락에 대해 조소할 때도, 항상 온건하고 차분할 줄 안다.

반대로 스무스 소울의 온건함과 차분함은 그의 팔세토가 삶에 얼마나 천착해 있는지, 인생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 또 이를 담아내는 목소리에 얼마나 반영돼있는지에 따라 결이 다른 깊이감을 부여한다. 어떤 테마를 그리든 감정이 앞설 필요도, 시대를 향한 짐을 멜 필요도 없다. 그의 음악은 충분히 진지하지만, 진지함보다도 담담함, 그리고 역시나 부드러움이다. 그의 새로운 도전은 소울이 따스함을 되찾는 과정을 위한 것이다. 재기에 성공하려는, 유산을 부흥하려는, 새로운 흐름을 완성하려는 욕심을 뺀 가치다. 사소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반기던 영광이 거기에 있었으니 말이다.

다시 힘과 지혜를 얻은 차곤은 일종의 연작 형태로 창작을 지속하는데, 그렇다면 이 역시도 옛 소울의 영광이 꺼질 줄 모르는 불처럼 연쇄하는 광경을 보고 있다고 여겨도 좋을까. 이에 대해 확신을 얻으려거든 일련의 흐름이 현재까지 가져다준 성취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흐름 사이사이에 포착 및 연결되고 있는 각각의 미학이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점진해나가고 있는지, 또한 그 안에서 어떻게 본질을 지켜내고 있는지를 볼 것이다. 그중 점진과 본질의 관계에 포커스를 둘 것이기에 본 탐구는 반드시 올해 발매된 <Lay Low>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우선 형태를 볼까. 본작의 프로덕션은, 말하자면 Nick Hakim 식의 사이키델릭 소울이 덧입혀진 확장형의 클래식 소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그의 철학은 빈티지에 있다. 따라서 깊은 속에 불확실성과 인간미가 더욱 돋보여야 한다. 어느 정도 몽환적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깔끔함과 간결함 속에서 녹진함을 찾으려 했던 John Carroll Kirby 식의 전작들 — <Pleasure, Joy, and Happiness>, <Sundown> — 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Marvin Gaye나 Al Green 등의 전통주의 거장들이나 초창기의 차곤이 추구했던 방향은 오히려 Kirby 식에 가깝다.

# SHOWBIZ!

## Showbiz! - MIKE

2025.01.31 / 온암

1. Bear Trap / 2. Clown of the Class (Work Harder) / 3. Then we could be free / 4. Watered down / 5. man in the mirror / 6. Artist of the Century / 7. What U Bouta Do?/A Star was Born (feat. 454) / 8. Belly 1 / 9. Da Roc / 10. The Weight (2k20)/ 11. Lost Scribe / 12. Lucky / 13. #82 / 14. Too Hot (interlude) / 15. Pieces Of A Dream / 16. Strange Feeling / 17. Zombie pt.6 / 18. Burning House / 19. Showbiz! (Intro) / 20. Spun Out / 21. Miss U (feat. duendita) / 22. When it Rains / 23. Diamond Dancing (Broke)

지난 20년 간 힙합 음악의 동태를 관측했을 때, 유독 약화된 이스트코스트 힙합의 브랜드 파워는 동부 인사들의 후계자 양성 실패로 요약할 수 있다. JAY-Z가 <The Blueprint>를 발매하고 DMX가 Woodstock 페스티벌에서 20만의 관중을 흔든 이래로, 그들의 스타덤이나 위업에 대적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다시 나온 적이 있었는가? J. Cole은 새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으나 그의 음악적 성과는 실제에 비해 과대추정되었고, Joey Bada\$\$는 데뷔의 광휘에 묻혀 황금기의 그림자에 암약하고 있다. Griselda의 래퍼들은 그들의 유산이 유행으로 전락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늦게나마 발악 중이며, Pop Smoke에서 Ice Spice로 앰버서더가 교체된 드릴 뮤직은 크게 논할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떤 백인 랩 팬도 Barrington DeV Vaughn Hendricks가 브루클린 출신이라는 것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약 30년 전 데뷔한 노장들이 근 몇 년 간 가장 우수한 작품들을 배출하는 안타까운 역설 속에서, 오히려 뉴욕 힙합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존재들은 프로젝트의 늑지대에 은둔하고 있던 앵스트랙 힙합의 달변가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MIKE)라는 98년생 래퍼가 그들 중 최고라는 것을 부정할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뉴욕 골든 에라의 끝자락부터 형체를 갖추며 새천년의 언더그라운드 예술적으로 집필한 앵스트랙 힙합이란 이름의 명가는 현재까지도 영광스러운 혈통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막시무스 마스크를 쓴 채 마블 코믹스 최고의 빌런을 자칭하는 거장에게서 영향을 받아 남아프리카 시인의 아들 Thebe가 Earl Sweatshirt가 된 것은 유명한 일화이나, 우리는 뉴욕 출신의 내성적인 소년 Michael Jordan Bonema가 장르의 미래를 상징하는 거성이 된 작은 역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는 DOOM의 운율에도 영향을 받았으나, Metal Fingers가 비트를 제작하는 방식에 훨씬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들린다. 로파이로 분류되어야 마땅할 저음질의 재즈 샘플과 희미한 드럼 라인을 특징점으로 내세우며 샘플 컷의 이음새를 불투명하게 가공하는 특유의 테크닉은 분명 DOOM의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결과이다. <MAY GOD BLESS YOUR HUSTLE>, <Disco!>와 <Beware of the Monkey>, 그리고 본작에 이르기까지 마이크는 자기복제를 하는가 싶으면서도 언제나 미묘하고 섬세한 차이를 두며 진보해왔다. 그리고 그 진보의 폭은 청음함으로써 획득하는 단순한 인상보다 훨씬 더 상당한 수준이다

때문에 우리는 'MIKE'라는 총체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프로듀서로서의 자아인 'dj blackpower'에 대한 조명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Showbiz!>가 <Burning Desire> 후 2년 만에 비트메이커로서 그가 가진 경이로운 역량을 여실히 보여준 작품임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Disco!>의 후속작으로서 지닌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본작 — 당연하게도, 동명의 프로듀서에 대한 헌정 앨범이 결코 아니다. — 은 <Pinball>의 개량형 트랩/플러그 음악이 남겼던 아쉬움을 남김없이 씻어내린다. Roc Marciano나 JPEGMAFIA가 그러하듯이, 마이크 역시 온전한 셀프메이데어에서만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재능을 만발하는 몇 안되는 천재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앨범의 시작을 장식하는 "Bear Trap"은 dj blackpower의 음악 문법을 더할 수 없이 완벽하게 제시하고, 'How About Love'를 샘플링한 "Then we could be free"는 그가 소울이나 디스코 등 고전 흑인 음악의 향취를 살리는 데 얼마나 능한지 제시하는 훌륭한 방증이다. "You're the Only One Watching"의 칩멍크 소울은 재단할 구석 없이 깔끔하고, 낡은 LP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음질의 샘플이 앨범 전체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상적인 순간을 조성하는 "Strange Feelings"는 가히 환상적이다. 그리고 그 사이를 봉제하는 소울 참 비트들과 "The Weight (2k20)"의 색소폰 샘플, J Dilla 타입의 스윙 리듬,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부 곡의 트랩 드럼셋까지, <Showbiz!>의 프로덕션은 마이크가 편곡자로서 지닌 천부적인 감각을 고스란히 구현해놓은 것만 같다. 그는 어쩌면 현존하는 모든 힙합 프로듀서 중 블랙뮤직 원전의 전개와 화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일지도 모른다.

그의 또 다른 매그넘 오퍼스인 <Burning Desire>와 <Showbiz!>를 비교했을 때, 전자가 다소 과시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의 다채로운 방식으로 샘플을 편집하고 기타 사운드 소스를 감각적으로 운용해 견고하고 예리한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오리지널 스코어의 사운드스케이프를 건설한다면, 후자는 샘플로 사용된 재즈와 블루스 본연의 앙상블을 살리는 데 집중하며 마이크 음악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접근한다. 동명의 곡 중 고작 10초만을 샘플링해 루프화시킨 'Pieces Of A Dream'에 주목해보라. 로파이 샘플링 특유의 옛된 질감이 느껴지지만 정작 비트의 전개에 있어 커팅의 흔적은 일체 찾을 수 없는 무결함이 돋보이지 않나?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각 트랙이 두고 있는 샘플의 출처가 분명 상이함에도 곡의 개별적 존재감보다 한 음반으로서의 인상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기획력은 마치 Madlib 같은 장인이나 가질 법한 재능을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물론, SURF GANG과 함께 한 "Belly 1"이나 <Pinball>의 플로우를 재활용한 "Spun Out"에서 알 수 있듯 마이크는 다양한 시도 또한 서슴치 않으나, 그것은 트렌드를 추적하기에 급급한 시도가 아닌 그 자신의 음악을 더 지역적이고 독특하게 승화하는 아티스트리에 보다 가깝다. 때문에 마이크의 프로덕션은 공격적인 콜라주 음악보다도 정교하며 규칙적으로 조직된 패치워크 음악에 가깝다. 다채로움이 철저히 조율되었고, 그 에너지가 결코 선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Showbiz!>는 본질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마이크의 프로젝트 중 가장 광활하고도 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역작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분산된 그의 음악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마이크 본인뿐인 듯하다. 경직된 학술적 연설보단 Earl Sweatshirt로 대표되는 나른한 톤의 자유분방한 작가주의적 라임이 장르의 신예들 간 유행하는 세태지만, 마이크만큼이나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MC는 전무한 듯하다. 당장 그가 제작년 Danny Brown과 Earl Sweatshirt의 앨범에서 펼쳤던 인상적인 활약을 상기해보라. 그의 허스키한 바리톤 보컬과 정석적인 2-4 리듬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비선형적 전달법은 그의 정체성과도 같다. 그의 우상인 MF DOOM과 비교했을 때 마이크의 운용적 접근은 그 정도로 특출나게 계산적이거나 영리하지 않지만, 장르의 학생으로서 어느덧 10년을 바라보는 경력자답게 막연한 감각만으로 불규칙성을 규율 안에 완벽하게 끼워맞춘다. 그리고 감정선에 따라 발음의 명확도를 능청스럽고도 몽환적으로 조절하는 전달법과 천부적인 음역의 발성에 힘입어, 그의 래핑은 가히 영적인 인상을 주기까지 하다.

그리고 그 영의 형상은 그저 끊임없이 고뇌하고 사유하는 98년생 흑인 작가에 불과하다. 그는 거창한 존재가 되려 애쓰지 않는다. 되려 소탈하고 섬세할 뿐이다. 그는 청자에게 자신의 철학을 입각시키거나 강대한 정언 명령을 내리기보다 그저 그가 개인임과 동시에 예술가로서 느끼는 바들을 유려하게 토로할 뿐이다. 개인적이지만 과하게 극적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절하며 일상적인 드라마를 집필하는 것이다. "Lost Scribe"는 대표적인 예이다.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는 서정적 표현들을 다채로이 꾸리며, 음악가의 삶 속에서 얻는 스트레스와 극복 의지를 표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독자친화적이기에 그를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이다. 마이크의 장기는 매니아들의 숭한 추앙을 받는다 지성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한 척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JPEGMAFIA와 같은 재능을 가진 새로운 Earl Sweatshirt'라는 거창한 수식어보다도, 그저 'MIKE'라는 이름으로 설명될 때 그가 가장 현실적인 형체를 갖추는 이유이다. 그는 분명 래퍼로서도 모호함을 탐구하는 몽상가 동료들 사이에서 독보적이다.

<Showbiz!>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라면, <Hurry Up Tomorrow>의 다수 사례 등 강력한 후보가 존재함에도 단연 올해의 트랜지션으로 거론될 만한 5번 트랙과 6번 트랙 간의 변환일 것이다. "man in the mirror"의 피아노 코드가 6번 트랙인 "Artist of the Century"의 플루트 코드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며 환상적인 변환을 이루는 이 진경은 본작의 백미라 극찬할 만하다. 각각 "Fly the Wind"와 "Imagine Me"라는 다른 원본에 근간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완벽한 구도를 이루는 두 곡의 양립은 dj blackpower의 디깅 범위와 그의 우수한 화성학적 이해도를 암시한다. 하지만 고작 그 정도가 끝일까? 마이크는 의도적으로 유사한 코드로 진행되는 두 곡을 붙여놓고 의미심장한 제목을 붙였다. '거울 속의 남자'와 '세기의 예술가'는 동일한 곡조를 공유하고, 곧 동명(동명)이다. 브루클린의 MC로서는 다소 소탈한 품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울 속에서 비춰보는 모습은 진정 세기의 아티스트가 아닐까. 적어도 <Showbiz!>는 마이크가 그런 존재로 등극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공고히 하는 그의 또 다른 최고작이다.



# LIFE IS BEAUTIFUL

LARRY JUNE  
& 2 CHAINZ  
& THE ALCHEMIST



## Life Is Beautiful - Larry June, 2 Chainz & The Alchemist

2025.02.07 / moogsick

1. Munyon Canyon / 2. Colossal / 3. I Been / 4. LLC /  
5. Bad Choices / 6. Life Is Beautiful / 7. Generation /  
8. Any Day / 9. Epiphany / 10. Tru Organics / 11. Jean  
Prouvé

**알** 케미스트(The Alchemist)와 트래퍼? Westside Gunn과 트랩만큼이나 어색한 조합이다. 하지만 그 파트너가 베테랑 투 체인즈(2 Chainz)라면, 또 근래 절묘한 합을 보여준 래리 준(Larry June)이 함께한다면 어떠한가. 도합 70년이 넘는 경력을 지닌 새 아티스트의 2025년을 열어젖히는 <Life Is Beautiful>은 그 제목만큼이나 긍정적인 낙관주의가 넘실댄다.

2020년대 들어 정열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알케미스트가 중심이 된 작품은 그의 최근 음반 두 장을 연상케 한다. 2MC + 1PD라는 점에서는 <Faith Is a Rock>, 전반적인 분위기와 비트 메이킹의 방향성 면에서는 <Great Escape>이 그러하다. 투 체인즈와 래리 존의 톤은 비록 Mike와 Wiki의 그것만큼 양극단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뼈대를 단단히 잡은 채로 각자 고와 저를 누비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쪽보다는 외려 어느 정도의 묵직함을 보장하며 그 안에서 변화를 만드는 편이 후술할 작품의 무드와 더 잘 어울리기에, 두 래퍼의 합은 보태거나 뺄 부분 없이 잘 맞아 떨어진다 할 수 있다. 특히 "I Been"처럼 서로 짧은 마디를 주고 받으며 나아가는 트랙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장점이다. 알케미스트 역시 기존의 샘플 붐뱀에 더해 "Colossal", "Generation" 등 투 체인즈가 빛날 수 있는 무대를 설정함으로써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현상을 막았다. 이는 곧 드럼리스 위주였던 그의 근작들과의 차별점이기도 하다.

두 성공한 래퍼들은 <Great Escape>의 커버 속 경비행기처럼, 혹은 본작의 커버 속 요트처럼 감미로운 바람을 타고 온갖 자랑거리를 늘어놓는다. Pitchfork의 <Doing It For Me> 리뷰에서 단어 하나를 빌려오자면, 실로 '휴가 랩(vacation-rap)'이다. 일반적인 스웨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사도 존재하는 한편, "Life Is Beautiful"의 색다른 플렉스가 앨범에서 제일 흥미로운 지점을 만든다. "Al on the beat, spent my life on wax (알케미스트가 비트에, 내 인생을 레코드에 바쳤어) / Early morning calisthenics, after that, I kick back (이른 아침을 맨몸운동으로 시작해, 그 다음엔 폭 쉬어야지)"라고 바이닐과 운동을 언급하는 래리 존을 보라. 이어 투 체인즈는 간헐적 단식과 버피를 통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고 뽐내며, 자식들이 자신을 떠나 독립하는 광경을 대견스러운 어조로 이야기한다. 기타와 플루트, 피아노 등 보다 어쿠스틱한 루프로 풀어낸 느긋한 비트, 그리고 그 위에서 삶의 작고 큰 즐거움을 연달아 이야기하는 이들. 그야말로 '인생은 아름다워'다.



이 세 남자는 혼란스러운 사회와 음악계, 그중에서도 시끄러웠던 요즈음의 힙합 씬에서 멀리 떨어져 느릿하게 물살을 헤치는 것만 같다. 부정적인 자극으로 가득한 지구에 보내는 음반 형태의 디톡스는 우리로 하여금 이들의 배에 같이 올라타 낮은 파도를 즐기며 술잔을 부딪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엔딩 "Jean Prouvé"의 흑에서 전하는 "어떤 것들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그건 그냥 내 일부일 뿐이야"라는 말이 빠르게 굴러가는 세상에 뜻깊은 메시지를 던진다.



# \$ \$ \$ 4 U

## Some \$xy \$ongs 4 U - Drake & PARTYNEXTDOOR

2025.02.14 / SONGCHICO

1. CN TOWER / 2. MOTH BALLS / 3. SOMETHING ABOUT YOU / 4. CRYING IN CHANEL by Drake / 5. SPIDER-MAN SUPERMAN / 6. DEEPER by PARTYNEXTDOOR / 7. SMALL TOWN FAME by Drake / 8. PIMMIE'S DILEMMA (feat. Pimmie) / 9. BRIAN STEEL by Drake / 10. GIMME A HUG by Drake / 11. RAINING IN HOUSTON by Drake / 12. LASERS / 13. MEET YOUR PADRE (feat. Chino Pacas) / 14. NOKIA by Drake / 15. DIE TRYING (feat. Yebba) / 16. SOMEBODY LOVES ME / 17. CELIBACY / 18. OMW / 19. GLORIOUS / 20. WHEN HE'S GONE / 21. GREEDY

켄드릭 라마(Kendrick Lamar)와의 비프, 그리고 앨범 휴식기간을 지나 드레이크(Drake)가 돌아왔다. 그 옆엔 OVO Sound의 파티넥스트도어(PARTYNEXTDOOR)가 함께했다. 본작은 랩 게임에서 사실상 패배한 직후 발매된다는 점에서 음악 산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앨범 중 하나인 <Scorpion>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Pusha T에게 "The Story of Odidon"이라는 핵폭탄을 맞아버린 드레이크는 "God's Plan", "Nice for What", "In My Feelings"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주저앉기는 커녕, 힙합 아티스트를 넘어 가장 수요가 많은 팝스타로 군림했다.

과연 드레이크는 다시 한번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앨범이 시작되고 파티넥스트도어와 드레이크는 트랙을 채우기 위한 '지루한 음악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고 만다. 파티넥스트도어는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지루한 보컬 퍼포먼스와 Future를 따라하기 급급한 벌스로 본작의 큰 단점이 되었고, 비프에 큰 미련이 없다는 투로 토로한 드레이크의 메시지는 고개를 가우뚱하게 했다. 그러나 본작의 진가는 본격적으로 드레이크의 솔로 트랙들이 나열되면서 드러난다. 무명에 가까운 신예, Pimmie가 참여한 'PIMMIE'S DILEMMA'가 신호탄을 쏘며 다시 흥미를 끌어내는 트랙들이 등장한다. 이 구간 동안 드레이크는 자신의 장기를 발휘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큐레이팅'과 '소화력'이다. '올드 드리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샘플 프로덕션, 멜로디의 비중이 높은 팝 랩과 섹시 드릴, 마이애미 베이스에 해당되는 세부 사운드까지, 그는 이미 좋은 결과물을 배출했던 사운드를 다시 활용해 드레이크식 뱀어를 만드는 데에 성공했고, 어느 사운드든 특유의 팝한 터치를 통해 체화하는 방식이 한번 더 통한 순간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트랙들의 편차가 줄어들어 따라 파티넥스트도어의 퍼포먼스 또한 안정되었다는 것이다.

앨범은 전반적으로 지루한 구간과 흥미로운 트랙들이 공존하는 2020년대 드레이크 앨범들의 공식을 따랐다. 올해 발매된 앨범 중 가장 높은 첫 주 판매량을 기록했으나 (약 2억 8천만 회),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는 'Gimme A Hug'(6위)와 'NOKIA'(10위) 두 곡이 10위 내에 머무르는 등 대중의 평가는 쓴맛과 단맛이 함께 느껴졌다.



힙합 씬을 주의 깊게 팔로우했다면, 드레이크가 켄드릭 라마와의 비프 이후, 'Not Like Us'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UMG와의 불화를 의식한 듯, 파티넥스트도어와의 합작 앨범을 UMG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실상 인디펜던트 레이블이 된 OVO Sound에서 발매했으며, 이는 스트리밍을 벗어난 차트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모로 이중적인 면을 가진 본작은 드레이크가 새롭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장기를 살려 강력한 트랙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비록 '랩 게임'에서 겪은 상처가 그에게 깊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 W/HOM#20



## CLASSICS

1 Me Against the World 2 To Plmp A Butterfly



# 세상

# 과 맞서는

# 나

# 투팍 시크

## Me Against the World

- 2Pac

1995.03.14 / ryuzimoto

1. Intro / 2. If I Die 2Nite / 3. Me Against The World (feat. Dramacydal) / 4. So Many Tears / 5. Temptations / 6. Young Niggaz / 7. Heavy In The Game (feat. Richie Rich) / 8. Lord Knows / 9. Dear Mama / 10. It Ain't Easy / 11. Can U Get Away / 12. Old School / 13. Fuck The World / 14. Death Around The Corner / 15. Outlaw (feat. Dramacydal)

한 앨범은 사운드 프로덕션, 리릭, 퍼포먼스 등 여러 요소로 평가되지만, 때로는 아티스트의 강렬하고 극적인 신화적 서사가 그 작품의 평가를 완성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매듭지어진 몇몇 앨범은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고난과 투쟁, 또 극복을 담고 있지만, 실은 사회적 현실과 문제를 투영하여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 결국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외침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30년이 지난 아직도 뚜렷하게 흑인 커뮤니티를 지탱하는 목소리, 바로 투팍(2Pac)의 <Me Against The World>이다.

조금은 과격하지만, 앞장서서 흑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 투쟁했던 전 작품들로 인해 그는 당시 흑인들이 겪고 있던 아픔을 전달하는 기자이자 동시에 스타이기도 했었다. 그는 Thug Life라는 그룹, 운동단체를 결성하여 소외된 약자들을 대변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사회가 그에게 돌려준 것은 비참했다. 바로 5발의 총격과 성폭행 추문이었다. 총격전에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그는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기도 전, 스캔들로 인해 감옥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투팍은 옥중에서도 <Me Against The World>를 발매하며 이 상황에서도 주저않지 않았다. "세상과 나의 싸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앨범명, 자유를 빼앗기고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은 내러티브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은 그의 메시지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PAC

ME

AGAINST

THE

WORLD

하나, 앞서 언급한 사유로만 이 앨범이 클래식으로 남게 된 것은 결코 아니다. 서사를 뒷받침하는 프로덕션과 리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작("Intro")은 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뉴스 보도이다. 애당초 테마를 고뇌와 아픔으로 설정하고 간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프로덕션의 주된 핵심은 고전들의 재구성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 샘플링이 아닌 원작의 의미를 현대적인 문맥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이자, 투박의 정체성을 담아내어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Minnie Riperton의 "Inside My Love"와 Isaac Hayes의 "Walk on By", 두 곡을 샘플링한 앨범의 동명 트랙인 "Me Against The World". The Soul Searchers의 "We Share"를 바탕으로 한 서정적인 선율 위 Brand Nubian의 "Dedication"를 빌려 올드스쿨 붐뱁의 향취를 보여주는 "Old School"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 "Temptations"에서는 Bad Boy Records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프로듀서 Easy Mo Bee가 참여하여 동부의 중량감 있는 드럼 루프가 돋보인다. 지평크가 넘실대는 "Heavy in the Game", "Lord Knows", "It Ain't Easy"에서는 서부의 사운드를 탐미한다. 서부를 상징하는 투박이지만, 바운더리에 갇히지 않고 동서의 흐름을 모두 적극적으로 차용한 것은 한 지역을 넘어서서 스펙트럼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운드와 리릭. 두 요소만을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운드가 우선시되지만, 이 앨범에서는 가사가 좀 더 중요하다. 그는 지금까지는 거시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Me Against The World>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눈을 돌리면서 그가 놓여있는 현 상황을 서정적인 시적 표현을 토대로 사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자아성찰적인 질문을 던지며 내면의 갈등과 성장의 과정을 진지하게 탐구한다. "Me Against The World"에서는 맞서 싸우며 느끼는 좌절감을 표현하고 동시에 "자신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메시지를 설파한다. "Dear Mama"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본인을 포용해준 어머니에게 감사함과 죄스러운 마음을 전달, 모성애를 자극하여 모든 어머니들의 위대함을 표현한다. 1집의 "Keep Ya Head Up"의 연장선으로 느껴지는 "Can U Get Away"는 그녀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진지하게 다루며 희망과 자유, 즉 다시 한번 여성 인권을 강조한다. 시작부터 "Who you callin' rapist?"라고 강하게 말하며, 투박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는 사회에 맞서는 "Fuck The World"에 담긴 태도는 그가 다시 한번 범상치 않은 갱스터 래퍼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물론, 그가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Thug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해 온 그가 사회를 계몽시키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려는 것. 이는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양면성으로 비칠 수 있다. 하나 투박은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상냥했다. 그랬던 그가 왜 이렇게까지 호전적으로 변모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흑인 사회를 집중해 봐야 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손을 대고 차별과 핍박이 당연시된 거리에서는 마땅한 선택권이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더 더욱 힘껏 소리친 것이다. 인종적 문제만을 벗어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만연하게 자리 잡은 차별과 아픔. 이를 겪고 있는 누군가가 앨범이 담고 있는 무엇 하나라도 공감했다면 그야말로 투박과 감정적 교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로 남아 있다. 그 본질은 시대를 넘어서며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에 지속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물론 투박은 당장의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본인의 음악은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피울 것이고, 그 불꽃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을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 굳건한 신념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to pimp a butterfly.



by kendrick lamar

2015.03.15 / 온암

1. Wesley's Theory / 2. For Free? (Interlude) / 3. King Kunta / 4. Institutionalized / 5. These Walls / 6. u / 7. Alright / 8. For Sale? (Interlude) / 8. Momma / 9. Hood Politics / 10. How Much A Dollar Cost / 11. Complexion (A Zulu Love) / 12. The Blacker The Berry / 13. You Ain't Gotta Lie (Momma Said) / 14. i / 15. Mortal Man

**I remember you was conflicted, misusing your influence.**

...환기가 필요하다. 이 방은 묵은 공기로 가득 차 도통 견딜 수 없다. 꿈꿨던 먼지가 쌓일 대로 쌓인 낡은 LP 플레이어는 역설적인 곡조를 긁어낸다. "Every nigger is a star." 뿌옇게 변한 공기를 타고 들려오는 낙관의 주문은 신경을 날 서게 만든다. 갇힌 듯한 기분이 목을 조여오고, 환기가 필요하다. 이대로 갇힐 수 없다. 날 읊아매는 번데기에서 이번만큼은 분명 탈출한다. 해방된다! "Hit Me!"



Flying Lotus가 창조한 드림의 육신은 분명 기계 장치에 감금되지 않은 실재적 형태이며, Thundercat의 생동한 이중 베이스는 불균일한 유동적 파동이 되어 악곡에 생명을 부여한다. 전율적인 신디사이저는 세속적인 발상을 아득히 지나치며 검은 바다를 가르고, <good kid, m.A.A.d city>를 절대적인 클래식으로 숭상하는 흑자는 감히 신세계의 음악 전에 장르를 분간하려는 시도조차 행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펵크의 George Clinton과 지펵크의 Dr. Dre가 “Wesley’s Theory”라는 이름의 무대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무대에 선 컴튼의 선한 소년은 황금만능주의의 달콤함에 중독된 젊은 래퍼와 미 정부의 얼굴인 잉클 샘으로 각각 분하며, 국가의 기득권 세력이 몇백 년 간 공들여 건설한 인종차별적 조세 정책이 경제관념이 부족한 흑인들의 과소비 본능을 자극해 궁극적으로 삶을 파멸시키는 제도적 모략에 대해 다룬다. 정말? 진정으로 이 정도의 기형 사회학만이 그가 입각하고자 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암시하는가? 켄드릭 라마(Kendrick Lamar)가 Wesley Snipes의 탈세 사례를 들어 제시하는 금융 이론은 정확히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기능하는가?

조금 더 상투적인 표현으로 돌아가자면, “Wesley’s Theory”는 분명 힙합뿐 아니라 전 장르를 통틀어서도 가장 인상적인 ‘첫 트랙’임이 극명하다. 흑인 음악의 연표를 편찬한 최고 지성들이 각자의 재능을 적절한 선에서 발휘해 연주한 이 역사적인 인트로는 걸작의 서문이 마땅 갖춰야 할 자격들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 George Clinton과 Dr. Dre라는 두 거장을 초청하고도 음악 제작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뒤 Flying Lotus와 Thundercat이라는 음악가들을 전면 배치한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앨범의 방향성과 더불어 켄드릭이 주도하는 블랙뮤직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은유하고 있다. 한계까지 몰아붙이고자 하는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세금 징수원이 온다!’라는 풍자적인 선언을 끝으로 흡잡을 데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For Free? (Interlude)”, 그리고 고작 2분 길이의 인터루드가 남긴 혼돈에서 “King Kunta”의 정갈한 펑크로 전환되는 일련의 흐름은 색소폰 하나만을 동원해 처리한 변환이라고 믿을 수 없이 깔끔하다.

이처럼 <To Pimp A Butterfly>가 악곡의 진행에 있어 여타 힙합 음반들보다 한 층계 위 고차원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흑인 음악의 역사를 축약한 즉흥적인 세션 워크에서 혼돈 이론적으로 도출해낸 가장 우수하고 유기적인 종자들만을 채택해 수록한 가공할 음반 기획력 때문일 것이다. 샘플링에 의존하는 기성 힙합 작법보다 더 유기적이고, The Roots로 대표되는 실물 작곡보다 더 창조적이다. 켄드릭 라마는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 West Coast Get Down과 Robert Glasper와 어울렸고, Pharrell Williams와 Boi-1da에게 외주를 맡겼으며, George Clinton과 The Isley Brothers에게 다시금 젊은 손길을 내밀었다. 그렇게 제작한 거대한 원격 송캠프는 적법한 음악적 자원이 발굴될 때까지 — 역설적이게도, 이와 같은 제작 방식은 본작에 앞서 2010년대를 양분하는 라이벌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 결코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켄드릭은 지휘자로서 그들에게 재즈를 요구하기도, 때론 펑크를 요구하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울을 요구하며 질서와 무질서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다. 그렇게 과할 정도로 자유분방한 “For Free? (Interlude)”의 하드 밥, “These Walls”의 농염한 알앤비 톤 네오 소울 프로덕션, Lalah Hathaway 샘플과 Knxwledge 특유의 금속성 퍼커션을 교차하며 싱코페이션을 적극 활용한 스윙 리듬을 돋보이게 한 “Momma” 등이 차출되었다.



고전들은 재해석되며 '새로운', '진보적', '실험적', '전위적'이라는 관을 쓰고 조직을 구성한다. 훗날 <Drunk>, <Cosmogramma>, <The Epic> 등 이 시대 블랙뮤직의 대표작들을 거느리게 될 천재들을 지휘한 이는 고작 5피트 4인치의 웨스트코스트 래퍼였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정도로 광대한 역량을 지니고 있었다. 베이스나 드럼 대신 스탠딩 마이크를 쥔 연주자였지만,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검은 날개를 펼치며 밴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 그는 그런 면에서 마치 새로운 D'Angelo와도 같은 존재였다. 인간군상에 대한 관조적 통찰력까지 갖춘 난세의 현인이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To Pimp A Butterfly>는 Soulquarians의 방법론

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으나 — 정확히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지만 —, <To Pimp A Butterfly>의 켄드릭 라마는 Soulquarians가 힙합과 소울에 뺀 뿌리 중 가장 이상적으로 재조직된 궁극체였다. 새천년을 분기한 <Voodoo>와 <Things Fall Apart>는 Soulquarians가 이룩한 업적의 정점이었고, 네오 소울과 재즈 힙합의 목소리로 가장 지적인 시대정신이 외치는 요구였다. 세상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침묵하고 있던 D'Angelo는 핑크로 다시 돌아와 오히려 과거의 반사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꽃피워낸 음악에 바친 애정과 경의에 <Black Messiah>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Chinua Achebe의 펜으로 써내린 <Things Fall Apart>의 The Roots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Harper Lee의 펜으로 써내린 <To Pimp A Butterfly>의 켄드릭 라마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D'Angelo의 2집과 The Roots의 4집이 그러했듯이, <Black Messiah>와 <To Pimp A Butterfly>가 담아낸 음악의 출신성분은 동일하다. 하지만 <To Pimp A Butterfly>는 <Black Messiah>가 아니다. 켄드릭 라마는 블랙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래퍼다. 그는 프로그레시브 소울과 핑크, 아방가르드 재즈를 랩 음악으로 재정의했다. 그가 래퍼이기 때문이다.

켄드릭이 민족적인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진보된 형태의 블랙뮤직 프로젝션을 구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Section.80>의 20대 흑인 청년, 랩스타로 등극한 <good kid, m.A.A.d city>의 그 'good kid'이다. 단지 그가 래퍼로 성공하며 꿈과 성공 이상을 수용해야 할 고차원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뿐이다. 그는 '진짜배기'가 되었을 지 몰라도, 아직까지 번데기를 벗어나지도 못한 애벌레에 불과하다. 그가 장막을 들추고 보는 광경은 잔혹할 만큼 냉혈하며, 혐오와 욕망의 굴쇠를 깨뜨리지 못한 흑백 성조기의 땅이다. 그렇기에 전작의 위태로운 연장선상에서 위태로이 균형을 유지하는 켄드릭은 "Wesley's Theory"와 "For Free? (Interlude)"에서 내수적 경향의 문화적 은유들을 수놓으며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이 성공한 흑인들을 대상으로 가하는 억압에 정면으로 맞서려 한다. 그리고 Curtis Mayfield와 DJ Quik을 합성한 핑크 힙합 "King Kunta"에서 그의 자부심은 극에 달한다. 2013년의 흥포한 독재 선언으로 방출한 호승심을 다시 회수하며, 정복 욕구는 비대하게 부풀려져 간다. 다리가 달리지 않은 쿤타 키텔을 자처하는 그는 성공한 흑인의 표본으로서 컴튼에서 치킨 윙 댄스를 추며 문화적 자긍심을 양껏 표출한다. 정말? 승리감에 도취된 채 이대로 여정을 끝낼 것인가? 켄드릭은 그에게 어느 때보다 영광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의심을 가진다. "I remember you was conflicted."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시 질문해보자. 켄드릭 라마가 Wesley Snipes의 탈세 사례를 들어 제시하는 금융 이론은 정확히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기능하는가? 그는 정말 미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만을 비판하고자 논란의 법적 분쟁을 조명했는가? 어쩌서 눈을 가린 채 달콤한 기만에 순순히 넘어가는 흑인들의 존재는 등외시되는가?



“Institutionalized”는 자기혐오를 상징하는 첫 분기점이다. 일반적으로 백인중심적인 미국 정부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하고 게토의 비극적인 삶에서 서정적 면모를 탐구하는 여타 의식적인 힙합 음반

과 달리, <To Pimp A Butterfly>는 커뮤니티의 악습에 처음으로 눈길을 돌려본다. 출신이라는 운명에 지독하게 얽매어 성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고뇌하는 켄드릭은 본질적인 공허함에 마주한다. 그 자신의 우상이었던 Slick Rick의 스토리텔링처럼 켄드릭을 철저히 타자화시키는 웨스트코스트의 지박령은 청중을 연극으로 초대하고 이해 범위를 확장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These Walls”을 좀 더 광활한 범위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Terrace Martin의 관능적인 프로덕션이나 켄드릭의 유려한 래핑, Anna Wise와 Bilal의 앙상블 외에도 시적인 만큼이나 자세한 성관계 묘사, ‘벽’의 다중 의미나 <good kid, m.A.A.d city>의 시퀀, 그리고 다시 조리개가 축소됨과 동시에 켄드릭을 지배하고 있는 분노와 자괴감의 페이스스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 “Momma”는 원론적 탐구를 상징하는 분기점이다. 켄드릭이 “Control”의 대란으로 랩의 루키들을 링 위에 올린 후 택한 다음 행보는 불씨를 랩 게임에 남겨놓은 채 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이는 본작에 자기혐오를 마주하며 무릎 꿇린 자아로 하여금 다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회귀하게 하는 전개로 반영된다. 래퍼로서의 성공에 대해, 나에 대해, 인종에 대해. 이 세 가지의 개념은 각각 “Hood Politics”, “How Much A Dollar Cost”, “Complexion (A Zulu Love)”에서 구체화된다. 세 곡의 혹은 도그마의 영적 권능을 대변하고, 켄드릭은 기독교적 관점과 범아프리카주의에 근간해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자아성찰과 역사적 탐구를 병행한다. 그리고 이 두 분기점 사이를 양분하는 ‘u’와 ‘Alright’의 정서적 낙차만큼이나 본작의 전개는 극적인 설득력을 갖춘다.

‘극적이다!’ 혹자는 켄드릭 라마의 디스코그래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곤 한다. 아직 충분히 익지 않아 적절한 보조관념을 물색하지 못한 <GNX> 정도를 제외한다면, <Section.80>는 다큐멘터리, <good kid, m.A.A.d city>는 영화, <To Pimp A Butterfly>는 시, <DAMN.>은 수필, <Mr. Morale & The Big Steppers>는 연극이라고. 사실 각각의 앨범이 비유되는 매체에 대한 교집합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켄드릭 라마’라는 거대한 일대기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기에 연출의 측면에서 전작이나 후속작의 속성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To Pimp A Butterfly>를 일컬어, 이 음반에 연극적 요소나 시네마틱한 순간이 전무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 잘 만든 예술 작품은 인류보편적인 공감을 얻기 마련이다. 특히 그것이 영화 같이 고차원적인 경지의 매체일 때는 더욱 말이다. 켄드릭 라마는 치밀한 연출력과 지극히 힙합이 경험하지 못한 메소드의 연기로 본작의 음악이 제공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네오 블랙플로테이션의 경지까지 끌어올린다. Kamasi Washington의 음험한 색소폰 연주 위 베테랑 배우를 방불케 하는 급박한 호흡으로 극에 달한 자기혐오를 토해내는 그의 메소드를 목도하라. 랩의 형태로 가장한 그의 연기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God Is Gangsta” 영상 속 그의 모습을 상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이 <To Pimp A Butterfly>의 장르를 구태여 고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본작이 제공하는 음악적 엔터테인먼트 — 당신이 흑인 음악에 비교적 친숙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사운드의 결과 그루브를 만끽할 수 있는 가정 하에 말이다! — 와 켄드릭의 친절하고도 극적인 스토리텔링을 따라가기만 해도 그 대부분의 감흥이 온존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본작의 문화적 레퍼런스를 타협 음악인들의 리릭시즘과 빗대어 볼 때, 절대적인 수준에서 결코 그 수량이 많거나 전문적인 수준이라고 평하기에도 역시 어렵다. 다시 말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이다. 이는 걸작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영클 샘, 프리 재즈, Parliament-Funkadelic, 성경, <Roots>, 흑표당, 네오 소울, Trayvon Martin, 흑인 민권 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Nelson Mandel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면 본작의 메시지가 선사하는 감동은 더욱 지대해지겠으나, 어디까지나 소폭이다. 결국 <To Pimp A Butterfly>는 흑인 메시아의 성서가 아닌, <good kid, m.A.A.d city>의 주인공이 온전한 모습의 흑인 스타로 거듭나는 성장 서사이기 때문이다. 본작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신자들이 특기해야 할 점은 오직 켄드릭의 자기성찰적인 낱말들과 감정선뿐이다. 후대에 <Mr. Morale & The Big Steppers>가 남긴 수많은 의문들과 <To Pimp A Butterfly>의 직관성을 대조해볼수록 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To Pimp A Butterfly>는 그 창조자의 가장 진솔한 앨범이 요구했듯 음향적 단서들을 몰색하게 하거나, 개인사에 지나치게 이입하게 하거나, 감정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 그 자신의 존재가 그 모든 원소들을 포함하며 가장 이상적인 결정체로 편성 후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The Blacker The Berry”의 충격을 고스란히 느끼기 위해 흑인 민권 운동의 역사와 미국 정치사를 모두 암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저 순수한 분노와 혐오의 정서만이 호흡의 주도권을 지배할 뿐이다. 고전 흑인 음악에 대한 애향적 프로덕션 중 가장 파격적인 순간에는 Funkadelic의 영향이 저명한 “It’s Your Thing” 드럼 샘플에 포식당해 탄생한 강렬한 붐뱀 비트가 존재한다. 그리고 Assassin의 주술적 광분과 켄드릭의 야수적인 플로우가 존재한다. 이들은 이해되거나 학습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 무엇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청자의 뇌리를 장악할 뿐이다. 켄드릭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고 감정적으로 자제되지 않은 채 비이성적인 분노, 억압받은 자존감의 반항인 비대한 자아와 피해망상을 노출한다. 그리고 그의 표현이 가장 인종차별적이고 규정적으로 변할 때, “So why did I weep when Trayvon Martin was in the street? When gang banging make me kill a nigga blacker than me? Hypocrite!” 흑인 우월주의적으로 해석되었던 문장들을 모두 민족혐오적으로 전환하며 첫 벌스의 복선을 완벽히 회수한다. ‘u’의 자기혐오 정서 극대화, 앨범 내내 중시되었던 흑인 사회에 대한 자가적 고찰, 천재적인 빌드업과 반전 연출까지 “The Blacker The Berry”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그리고 이 순간은 켄드릭이 도출할 현명한 결론을 위해 그를 지배하고 있던 정서적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 필연해야만 했다. 아웃트로에 사용된 Terrace Martin의 연주곡이 반전의 여운을 맞이할 시간만을 마련하는 건 아니다. 블랙 프라이드를 애정으로 눌러담은 Rapsody의 이상향적인 벌스 바로 다음에 배치된 것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민족적/반민족적 통한이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을 애써 숨기지 않고 실재적으로 표출했기에 그는 마침내 속박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켄드릭은 이 음반을 제작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어주었던 거장들에게 자유의 영광을 돌린다. Parliament 특유의 낭만적인 신스 포르타멘토가 갱스터 힙합이 아닌 네오 소울과 컨셔스 랩이 되는 몽클한 순간의 "You Ain't Gotta Lie"는 결론의 도입부에 해당한다. 과시하기 위해, 집단에 어울리기 위해 본연의 정체성과 다른 가면을 쓸 필요 없다며 점잖게 타이르는 — 그가 유독 문화의 참칭자들을 끈질기게 혐오하는 이유일 것이다. — 켄드릭의 비음은 격노의 파도가 쓸고 간 감정선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되어준다. 'Be yourself,' 'i'는 이 궁극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유독 샘플 사용을 자제하고 세션 연주를 주로 운용했던 켄드릭의 고집이 소울 음악을 상징하는 위대한 밴드에 예우를 갖춰 샘플링한다는 방법으로 부정되는 음악적 전략은 서사상의 하이라이트와 맞물리며 압도적 규모의 카타르시스로 승화된다. 그가 신을 언급하는 순간 "Alright"의 데자뷰가 뇌리를 스치지만, 이는 결코 동어반복이 아니다. "Alright"은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외부로부터 부여받은 낙관이지만, "i"는 그가 근본으로 회귀해 "Complexion (A Zulu Love)"의 Martin Luther King적 관점과 "The Blacker The Berry"의 Malcolm X적 관점 사이에서 찾아낸 오직 켄드릭 라마만의 해법이다. 이는 Pharrell Williams와 The Isley Brothers의 차이이고, 동시에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된 플로우와 어떠한 제한에도 구애받지 않는 영적인 플로우의 차이이다. "Alright"에서 켄드릭은 홀로 되뇌인다. 반면 "i"에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자존감을 박탈하고 정체성을 규정하던 단어의 저주를 파괴하고, 에티오피아 출처의 의미로 환기하며 혈통의 고유성과 자부심을 래퍼로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조명한다. 번데기가 벗겨지는 순간, 개인의 자아성찰로부터 시작한 각성이 흑인 사회 전체와 나아가 인류 전체로 확장되는 아름다운 순간이다. 자기에라는 결론은 분명 비단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일종의 통념이다. 켄드릭이 그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고되고 민족적인 여정을 택했을 뿐, "i"로 수렴되는 <To Pimp A Butterfly>의 메시지는 결국 인류보편적이다. 그러나 "Wesley's Theory"의 착취는 아직 하나 더 남아있다. 유명세. 흑인 스타가 불완전성을 감내하고 힘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켄드릭 라마는 언제나 걸작의 글꼬리에 질문을 남긴다. "Real" 후 "Compton"의 스킵이 그러했고, "DUCKWORTH."의 역재생 기법이 그러했다. "Mortal Man"은 이상적인 엔딩일 수 있었던 "i"를 밀어내고 'When shit hit the fan, is you still a fan?'이라는 중대한 시사점을 남긴다. 자기에라는 가장 이상적인 해법을 제시한 그가 아직까지도 불안형 애착의 저주에 몸부림치며 사랑과 신뢰를 요구하는, 곡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비극이자 역설이다. 예술가의 개인적 결점이 업적의 발목을 잡을 때, 세상은 그들이 추대한 지구상 최고의 스타를 억울하게 희생시켰듯 필요가 없어진 리더와 선지자를 가차없이 버릴 것인가? <To Pimp A Butterfly>는 전작보다도 상업적으로 저조했다. 그의 결론은 흑인 사회의 청사진이 되지 못했고, 그의 관점은 많은 이들로부터 거부당했다. 폭스는 그의 가사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또 다른 혐오를 양산했고, Donald Trump가 당선되었다. 그래서 켄드릭은 <DAMN.>을 만들었다. 문제의 근원을 보다 깊은 자아성찰로 해결하려 했으나, 사람들과 마블 스튜디오는 "FEEL."보다 "HUMBLE."을 사랑했다. 사람들은 폴리처로부터 인증받은 그의 메시지를 소비하길 즐겼으나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BLM의 행진가는 "i"가 아닌 "Alright"이었다. 본질의 표면만을 욕망하는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그 자신마저 결국 모순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더 비대해지기 전에 그의 모순을 해결해야만 했다. 허나 대신 인정하고 말았다. <Mr. Morale & The Big Steppers>는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영웅의 아름다운 패배 선언이었다. 이제 그는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가 신분을 되찾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일단 캐나다 래퍼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부정하는 것이었다. 네 차례의 공격으로 그는 Drake를 만인의 적으로 전략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자. 전 세계에서 재생되는 Drake의 장송곡, 틱톡 챌린지를 양산할 만큼 컬트적이었으나 진의를 읽을 수 있는 이는 실 관객의 0.01%도 되지 않을 슈퍼볼 하프타임쇼, "luther" 바이럴. 과연 무엇이 또 남았나?

그는 계속해서 인터뷰어의 고백을 경청하고 있었다. 단지 그가 화면 밖에 있었을 뿐이다. 1994년 투팍(2Pac)의 인터뷰를 재구성해 20년 전의 과거와 생생한 담론을 나누는 <To Pimp A Butterfly>의 천재적인 엔딩은 본작을 고전으로 추대한 미국 흑인 문화의 역사적인 순간이다. “California Love”의 뮤직 비디오

<untitled unmastered>에서조차 믿을 수 없이 우수했던 <To Pimp A Butterfly> 송캠프의 실험적인 앙상블은 자취를 감췄다. 그는 loopmasters 샘플을 사용해 만든 비트 위에 랩을 하거나, Playboi Carti의 새로운 프로듀서가 만든 비트 위에 랩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Not Like



Us”와 <GNX>로 미루어볼 때, 10년 전과 같은 내향형의 지성을 더 이상 접하긴 요원해보인다. 그는 여전히 다중적 은유를 사용하기를 즐겨하는 완벽주의자일지 모르지만, 그가 평균적으로 음악에 담아내는 역량은 분명 그의 최선이 아니다. 그는 이전처럼 필요 이상으로 자기비하적이기보다, 필요 이상으로 오직 드레이크를 비하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집착의 대상이 변경된 것일까? 그의 음악은 점점 더 간단하고 저차원적인 형태로 개조되어가는데, 그 자신의 인간상은 점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뒤틀리고 있다. 이제 Kendrick 본인의 팬들조차 그의 행동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너무 고차원적이거나, 혹은 모순적이기에. 사실 그 모든 분석과 미사여구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현재의 Kendrick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To Pimp A Butterfly>에 잔존해있다. Dr. Dre와 Snoop Dogg 초빙, “Loving You Ain’t Complicated” 샘플, “The Blacker The Berry”, 앨범을 함축하는 시의 조각들이 가리키는 곳. 그의 본성이 인류애적인 평화주의자에서 가끔씩 잔혹한 야만전사로 돌변하는 이유, Pop Out의 붉은 후드티와 십자가 체인.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잠시나마 ‘To Pimp A Butterfly’가 아닌 ‘Tu Pimp A Caterpillar’로 회귀하는 공간.

“The ground is gonna open up and swallow the evil.”

오 촬영장에서 멀리나마 그의 존재를 접했을 때부터 Kendrick에게 언제나 가장 큰 영감은 투팍이었고, 돌아보면 지난 10년 간 가장 각광받았던 그의 행보조차도 팍의 위대한 족적을 벤치마킹하려는 동경심에 뿌리하고 있었다. 투팍은 여전히 25세의 청년으로 남아있지만 그의 철학은 초월성을 지니고 있기에 Kendrick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투팍의 영과 대화할 수 있었다. 그는 묻는다. 땅에 대해. 불굴의 인간성에 대해. 흑인 사회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난세에 흑인 스타와 예술가의 의무에 대해. 투팍은 그의 제자가 진술한 만큼이나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그는 최대한 많은 경

험과 지혜를 Kendrick에게 전수하려 노력하고, 동시에 94년에 남아 있는 그의 낱말들이 아직까지도 현재의 미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비전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 자신이 말했듯, 그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모순과 죄악에 삼켜지는 대신 그 이상의 존재로 등극해 선영향을 남기는 것. 그렇게 언젠가 동굴을 밝힐 수 있는 불씨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것. Tupac Amaru Shakur는 Kendrick Lamar Duckworth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해답을 알려줄 순 없다. 왜냐하면 그는 지나간 시간선에 남겨진 과거의 나비이니까. 팍은 사라지고, Kendrick 혼자만이 남는다. 이제 진리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것은 온전히 Kendrick의 몫이다. 그 이후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는 정말 새로운 흑인 스타가 되었는가? 그의 모순은 문화적 사명이란 미명 하에 미화될 수 있는가? 남은 질문은 이전보다 많지만 투팍은 정진하길 택했다. Kendrick 또한 걸어가고 있다. 그가 최고의 래퍼로 기억될 것이라는 영광과 인간적으로 불완전한 행보를 구태여 대조하는 데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경쟁과 혐오도 아닌 화합이기에, 불꽃은 최후의 그날까지 기억될 여러 이름을 거치며 번질 것이다. Pac, 모순적인 경전의 책장을 고이 덮어주며, Pac, 원죄를 감내하는 강인한 역설의 전철을 밟으며, Pac, 검은 나비의 작은 날개짓으로 언젠가 일 폭풍을 기원하며.

He can no longer see past his own thoughts, he's trapped. When trapped inside these walls certain ideas take root, such as going home, and bringing back new concepts to this mad city. The result? Wings begin to emerge, breaking the cycle of feeling stagnant. Finally free, the butterfly sheds light on situations. That the caterpillar never considered. Ending the internal struggle. Although the butterfly and caterpillar are completely different. They are one and the same.

『To Pimp A Butterfly』, 2015.



# w/HOM#20

---

## Feature

1 KHL이 좋아하는 랜덤리뷰 스타트! 2 디스전, GNX, 그리고 슈퍼볼  
하프타임쇼

---

---



**SUPER BOW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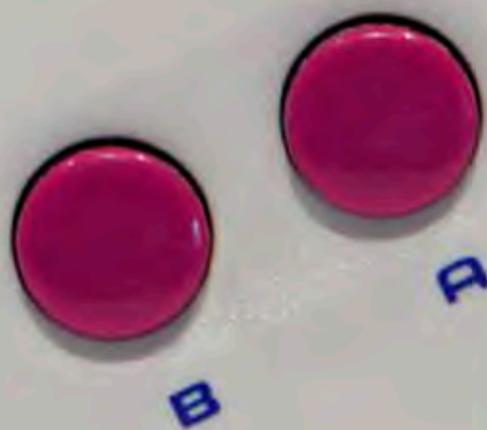
---

DOT MATRIX WITH STEREO SOUND

BATTERY



Nintendo **GAME BOY™**





**Yoshu Fukushu - MAXIMU THE HORMONE**

2013.07.31 / 감상주의 → SONGCH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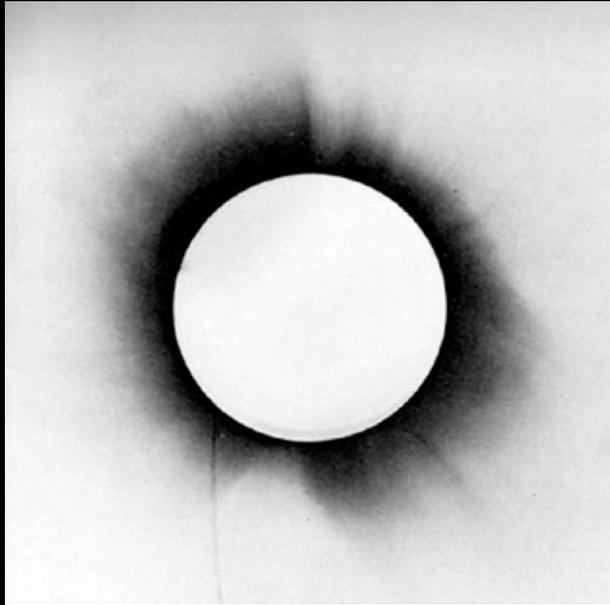
KANKAN의 경우 <##RR>이라는 정규 단위 프로젝트를 이전에 한 차례 감상해본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레이지 장르를 아직까지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서 당시에는 무엇을 느껴야할지 모르겠다는 감상이었는데, 이번 <Oxy&Codein>은 볼륨이 짧아서인지 생각보다 즐겁게 청취했다. "Goin' To Hell"은 확실히 캐치한 뱅어 트랙이었고, "Ain Goin' To Heaven" 역시 앨범을 훌륭히 마무리 짓는 좋은 아웃트로 트랙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KANKAN과 같은 트래퍼 특성상 정규 앨범 단위 프로젝트에서는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EP 프로젝트처럼 볼륨이 짧은 앨범에서는 확실히 아티스트로서의 재능이 여실히 발휘되는 것 같다.

재생버튼을 누르자, 일본어가 흘러나왔고 나는 탄식했다. 시간이 지나자 보컬은 갑자기 목을 긁어소리쳤고 메탈 앨범임을 알게 된 나는 한번 더 탄식했다. 하지만 이게 웬걸? 그러다가 갑자기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뀌는데 이 앨범에 수록된 대부분의 곡이 이렇게 진행되는게 재밌었다. 각 부분은 같은 곡이라는게 신기할 정도였다. 마치 기분에 따라 획 획 바뀌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근데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다. 나는 그래서 이 앨범이 좀 무서웠다. 언제 마음을 놓아도 될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듣다가 좀 익숙해질 때쯤 밴드의 이름과 동명인 트랙이 나왔는데 이 곡의 기타 리프가 레이지에 쓰이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느꼈다. 역시 난 레이지가 좋다. 메탈은 무섭다. (이 앨범은 좀 친절한 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앨범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장르가 너무 생소해서 다시 들을 것 같진 않다. Ps. 메탈 보컬들은 따로 목관리를 받으나요??

**Oxy & Codeine - KANKAN**

2021.03.23 / SONGCHICO → 자카





**All Our Gods Have Abandoned Us -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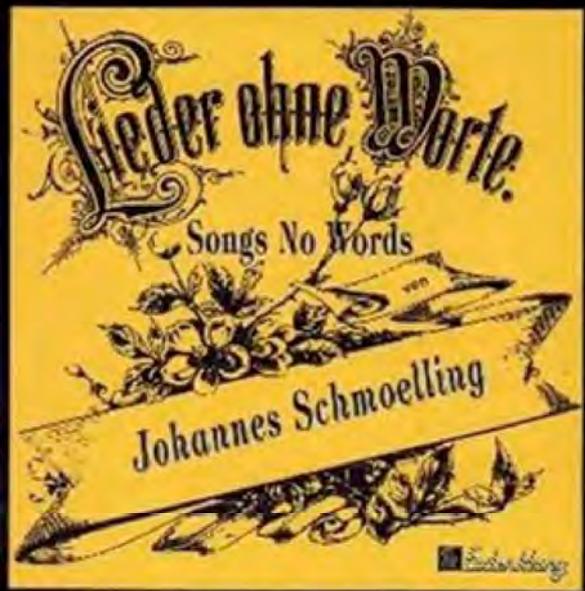
2016.05.27 / 자카 → SRUKSAN

뉴에이지란 어릴 적 접한 이루마밖에 모르는 내게 그 자체로 신선했던 음반. 전자음악도 좋아하는 만큼 가창의 부재가 딱히 걸리진 않았고 듣는 내내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아티스트와의 유사성이 느껴져 재밌었다. 가령 전반적인 신시사이저 운용 면에서 James Ferraro의 <Far Side Virtual>이 떠오르는 식으로! (실제 뒤늦게 찾아보니 <Far Side Virtual>의 RYM 장르 분류 내에도 뉴에이지가 있었다..) 여전히 장르 자체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뉴에이지가 이런 느낌이라면 더 디깅해 봐도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물씬 들었다.

AOTY 장르 구분에 프로그레시브가 붙어있어서 괜히 각 잡고 들었는데, 예상 외로 꽤 정갈한 작품이었다(어쩌면 이지리스닝일지도). 정석적으로 콕콕 임팩트를 '줘야만 하는' 구간에 치고 들어오는데, 나쁘게 말하면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좋게 말하면 흠 잡을 데가 없는 깔끔한 메탈 앨범이다. 해당 장르의 최대 단점이 앨범을 돌릴 때 다소 물린다는 감이 있다는 건데, 얼핏 들어도 클래식이라고 평할 수 있을 법한 짜임새 덕에 꽤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다(철학적인 가사는 덤).

**Lieder ohne Worte - Songs No Words -  
Johannes Schmoelling**

1995 / SRUKSAN → moogsick





### Double Cup - DJ Rash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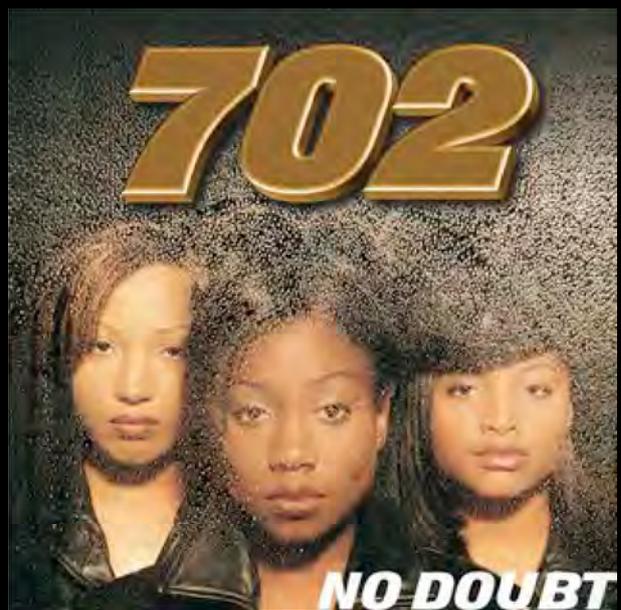
2013.10.22 / moogsick → snx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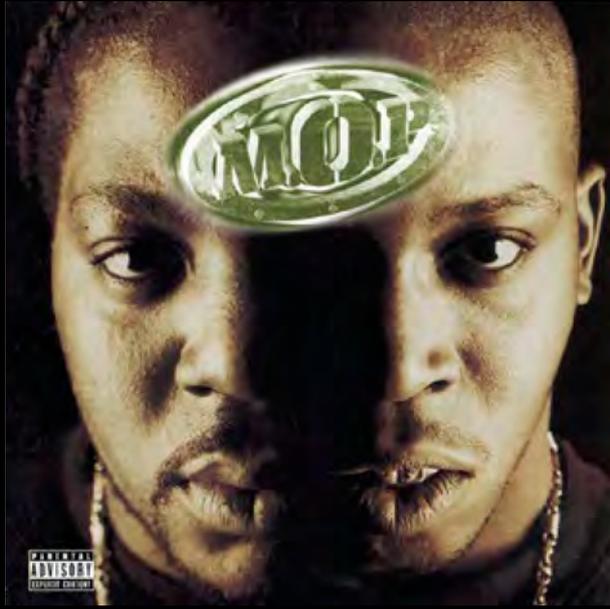
나름 친숙한 바이브의 앨범이 지목됐다. 그룹의 음악을 즐겨들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대의 네오소울 뮤직 아니던가. 앨범 커버에서부터 일단 반가움을 전제로 감상하게 된다. 물론 너무 익히 들어온 장르인지만 너무 뻘뻘하면 재미없다. 본작이 혁신적인 타입은 아니다. 그러나 들을수록 "그래, 이 느낌이지!"라는 좋은 기분만 가득해진다. 진득함이 선사하는 아늑함은 제 아무리 사골로 우려먹어도 정겹고 구수하다. 네오 소울 음악이 커머셜함을 지닐 때 오는 편리성이 본작에도 유효해서일 듯 싶다. 가볍게 흘러 넘겨도, 깊게 음미해도 좋다. 일부로 카페 어느 한 자리에 눌러 붙은 채로 들으니 역시 그 느낌이 살더라니까 하하.

너무 두려웠습니다. 초면인 아티스트와 초면인 앨범. 아아. 내가 아는 DJ는 칼리드에서 멈췄는데. 드리지야, 킬러야. 정확히 56분 뒤 너희에게 돌아올게.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감상한 <Double Cup>. 음알못인 저는 본작을 통해 A. G. Cook의 <Britpop>이 주었던 것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내 취향인 몇 곡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곡들. 장르 팬들에겐 분명 게임 체인저로 여겨질 앨범이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특정 곡들에선 감탄까지 하며 즐겁게 청취한 작품이기는 하나, 안타깝게도 '트랩소울 성애자의 취향'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지는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톡 알림이 왔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읽지를 못합니다. 미안해요 DJ Rashad. 어른이 되어서 다시 찾아 볼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반가워, 121.4 MB.

### No Doubt - 702

1996.10.08 / snxo - 감상주의





**First Family 4 Life - M.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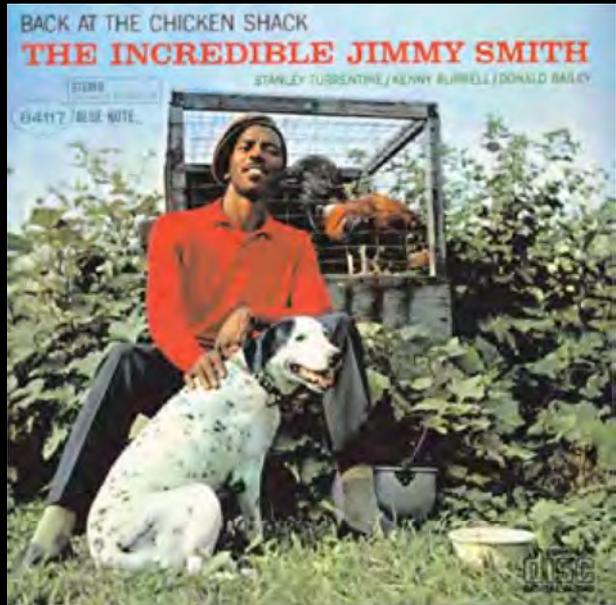
1998.08.11 / 온암 → 공ZA

재즈의 오랜 애호가라면 역시나 '블루 노트'라는 이름에 친숙해질 수밖에 없는 노트이다. 그리고 그 신뢰에 부합하게도 역시나 훌륭했다. 재즈 오르가니스트로서 가히 '혁신'이었다는 찬사를 듣는 거장 Jimmy Smith의 <Back At The Chicken Stack>은 그의 세션과 함께 재즈에 소울을 이식하는 데에 치중되어 있는 작품이다. 식별 용이한 독특한 오르간 사운드를 기반으로 거의 신들린 리듬감을 구사하는 Jimmy Smith는 현재까지도 재즈의 즉흥성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길을 개척 중인 것만 같다.

동부 하드코어 힙합의 대표주자 M.O.P.는 호랑이의 외침과도 같은 발성으로 전개되는 강렬한 랩 퍼포먼스로 힙합 씬의 그들의 이름을 아로새겼다. 전작 <Firing Squad>에 이어 DJ Premier가 전반적인 프로덕션에 참여했기 때문일까. 그들의 행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에 가까웠다. 새로움은 부족했을지라도, <First Family 4 Life>에서 M.O.P.가 보여주는 하드코어 힙합의 정수는 많은 힙합 애호가들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

**Back at the Chicken Shack - Jimmy Smith**

1963.02 / 공ZA → 온암



디스전,

GNX,

그리고

슈퍼볼

하프타임쇼

by 지킴



# 켄드릭 라마(Kendrick Lamar)는

당신에게 어떤 아티스트인가? 흑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메시아? 의식적이고 사회 고발적인 가사를 쓰는 래퍼? 구원자?

2020년대에 이르기 전까지의 켄드릭 라마는 확실히 모두에게 그러한 아티스트였다.

<good kid, m.A.A.d city>, <To Pimp A Butterfly>, <DAMN.> 등의 작품들로 대표되던 그는 블랙 커뮤니티의 현실을 날카롭게 조명하였고, 놀라우리만큼의 사회적 통찰과 주제 의식을 매 작품에 담아냈으며, 나아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도 심도 있게 풀어내며 수많은 힙합 리스너들에게 메시아적인 이미지의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모두가 간과했던 점은, 켄드릭 라마 역시 모두와 다를 바 없는 부족한 인간이었다는 것. 2017년의 <DAMN.> 이후 1,85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발표된 2022년의 <Mr. Morale & The Big Steppers>의 마지막 트랙이자 서사적으로 작곡의 그를 대표할 수 있는 곡인 "Mirror"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I choose me, I'm sorry  
전 제가 되고 싶어서요, 미안해요

Kendrick Lamar - Mirror (2022) 中

켄드릭 라마의 가장 자전적이고 어두운 작품인, <Mr. Morale & The Big Steppers>에서 그는 자신에게 의도치 않게 씌워진 블랙 커뮤니티를 대표한다는 이미지를 벗어던졌고, 남들과 다를 바 없는 부족한 개인의 모습을 조심스럽지만 또 당당하게 대중들 앞에 드러내었다. 더 이상 자신이 대중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그는 실제 행보에서도 과거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다. 그는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패셔니스타라고 자처하기도 하고, 친척 Baby Keem과 함께 "The Hibillies"라는 놀음판을 벌이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채로 원하는 옷과 차량을 구매하는 등의 행보를 꾸준히 보여와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그러한 켄드릭 라마의 변화를 좀처럼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많은 이들은 아직도 그를 블랙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게 사치와 이기주의적인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켄드릭 라마가 <Mr. Morale & The Big Steppers> 이후의 행보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행보를 보여주기에 이르렀다. 그가 갑작스럽게 동료 래퍼인 Drake와 J. Cole을 대상으로 한 디스전을 시작하였고, 그 디스곡을 슈퍼볼 하프타임쇼와 그래미 어워드에서까지 재생시켰으며, 심지어는 그의 디스코그래피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앨범이 발표되기까지 한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아무리 그의 태도가 완전한 변화를 겪은 이후라고 해도 말이다. 켄드릭 라마가 이 정도로 즉흥적이고 또 무계획한 행보를 선보인 적은 그의 지난 13년간의, 혹은 믹스테이프 시절까지 고려하면 총 21년의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즉, 그의 지난 1년간의 행보는 이른바 '뉴 켄드릭 에라'가 지향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주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중들이 설득되었는지, 필자는 지금부터 본 글에서 지난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며 '뉴 켄드릭 에라'에 관한 담론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 act 1 Drake와의 디스전

What is competition? I'm tryna raise the bar high

경쟁은 무슨 경쟁? 난 이 씬의 수준을 조금 높여보려는 건데

: Kendrick Lamar의 "Control" (2013) 벌스 中

**켄**드릭 라마가 특정한 디스전에 직접적으로 엮인 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5년 현재, Drake와의 디스전은 켄드릭 라마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나, 그 이전에는 힙합씬을 한차례 거세게 휩쓸고 간 "Control" 대란 사건이 존재했다. 그는 본 트랙에서 J. Cole, Drake, A\$AP Rocky, Mac Miller, Tyler, The Creator, Big Sean을 비롯한 수많은 동료 래퍼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힙합씬에 반항을 요구했다. 즉, 당시의 켄드릭 라마가 "Control" 벌스를 통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싸움을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비롯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더욱 수준 높은 음악들을 선보여 씬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4년 Drake와의 디스전이 띠는 양상은 어딘가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 그가 Future, Metro Boomin의 "Like That"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해 Drake와 J. Cole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아도 다소 뜬금없었고, 당시 리스너들이 추측한 "First Person Shooter"의 J. Cole의 Big-3 논쟁 언급이 디스전의 화두였다는 점 역시 억지스러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디스전이 끝난 이후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켄드릭 라마가 디스전을 시작한 이유는 순전히 자신이 싸움을 원하고 있었고, 또 Drake라는 인물을 너무나도 혐오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켄드릭 라마의 태도는 Drake를 향한 모든 디스곡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첫 디스 트랙인 "euphoria"에서 그는 Drake라는 인물과 캐릭터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그가 힙합 문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순수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이어진 "6:16 in LA"와 "meet the grahams"에서 그는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이며, Drake의 사생활적인 영역까지 모두 끌어들이 극도로 공격적인 태도로 그를 무참히 참수시키고야 말았다. 리스너들이 현재에 이르러 본 디스전을 2Pac과 The Notorious B.I.G.의 비극적인 대립과 Nas와 Jay-Z의 "Ether" / "Takeover"와 비견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닐 테다.

"meet the grahams"에서 그는 Drake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을 디스전에 끌어들이 공개적인 폭로전을 시작했으며, 이후 이어진 "Not Like Us"에서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춤을 추며 Drake를 향한 마지막 공격을 날렸다. 켄드릭 라마의 Drake와의 디스전은 힙합 씬 전체를 자극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Control" 대란과는 그 성격이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감정적인 모습으로 오직 Aubrey Drake Graham이라는 한 인물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였고, 결과적으로도 힙합 디스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캐나다 토론토 래퍼의 피로 처절하게 물들이는 데에 성공했다. 이후 진행된 The Pop Out 콘서트와 그래미 어워드, 또 슈퍼볼 하프타임쇼에서 'Certified Pedophile / A-Minor' 라인이 현장에 있던 수백수천의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처럼 터져 나오던 순간들은 켄드릭 라마의 변화에 대중들이 설득하기 시작되었다는 증거와도 같았다.

## Act 2. <GNX>

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Drake와의 디스전 이후, 약 반년의 시간이 지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공개된 켄드릭 라마의 6번째 정규 앨범 <GNX> 역시 변화한 켄드릭 라마의 태도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어쩌면 '뉴-켄드릭 에라'에 정점에 있는 작품이 바로 본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GNX>는 그 이름에 걸맞게 — 지나치다 느껴질 정도로 즉흥적이고 무계획하게 전개된다. <GNX>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점은 바로 본작이 큰 컨셉이나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서사적 작품이 아닌, 켄드릭 라마가 현재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 자유로운 작품이라는 것이다. 바로 전 작품인 <Mr. Morale & The Big Steppers>가 심리치료와 자기반성을 중심으로 한 서사를 치밀하게 구축해냈다면, <GNX>에서 그는 훨씬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트랙과 트랙이 연결되는 방식은 전작들보다 느슨해졌으며, 앨범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순간적인 에너지와 개별 트랙의 임팩트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점 역시 <GNX>만의 특징이다.



사운드 측면에서도 이러한 즉흥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전작들이 재즈, 소울, 펑크를 비롯한 사운드를 통해 서사를 강조했다면, <GNX>는 웨스트 코스트 힙합의 전통적인 뱅어 트랙과 래치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원초적인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다. "man at the garden"의 묵직한 드럼 패턴과 "reincarnated", "tv off"의 분노에 가까운 플로우는 켄드릭 라마가 더 이상 메시지를 설파하는 인물이 아닌,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면모와 공격성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으려 하는 래퍼로 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켄드릭 라마의 본질적인 강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켄드릭 라마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랩 메이킹 능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은 각각 "wacc'd out murals"와 "man at the garden" / "reincarnated"와 "heart pt. 6"에서 살아 숨 쉬고 있고, 그의 송라이터로서의 역량 역시 "luther"와 "dodger blue", 그리고 "gloria"에서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 빛난다. 비록 <GNX>가 컨서스 힙합과 재즈 사운드가 아닌 웨스트 코스트 힙합의 정통 뱅어 트랙들과 래치 사운드로 가득 차 있고, 메인 퍼포머인 켄드릭 라마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였다고 해도 이는 분명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일 테다. 켄드릭 라마는 그러한 변화들 속에서도 여전히 훌륭한 앨범의 퀄리티와 본인의 장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래퍼이기 때문이다.

## Act 3. LIX 슈퍼볼 하프타임쇼

The revolution 'bout to be televised

You picked the right time, but the wrong guy

혁명이 곧 방송될 예정이야

타이밍은 좋았는데, 사람을 한참 잘못 고르신 것 같아

LIX Super Bowl Halftime Show 인트로 中

켄드릭 라마가 2025년 슈퍼볼 하프타임쇼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현재 그가 Drake와의 디스전과 <GNX>를 비롯한 사건들로 1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뒤에, 심지어는 깐깐하기로 유명한 그 그래미 어워드의 마음까지 얻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서 방송된 켄드릭 라마의 슈퍼볼 하프타임쇼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1억 2천6백만 명이 시청하며 역대 최고 시청자 수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그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슈퍼볼 하프타임쇼가 방송된 직후 국내외의 일부 힙합 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연의 세트리스트 대부분이 <GNX>의 수록곡으로 가득 채워져있었기 때문이다.

공연이 시작되고, 미국의 노예제도를 비판하는 영화 <장고: 분노의 추격자 (Django Unchained)>에서 백인 주인들에게 충성을 바치며 다른 흑인 노예들을 억압한 역할을 연기한 배우 Samuel L. Jackson이 등장해 자신을 'Uncle Sam'이라고 소개한다. <To Pimp A Butterfly>의 인트로 트랙 "Wesley's Theory"에서 등장했던 그 Uncle Sam이 2025년 다시금 등장한 것이다.

이후 그는 본 공연을 "The Great-American game"이라고 소개하며 스타트를 끊는다.

Uncle Sam은 부패한 미국의 정부, 나아가 미국의 기득권층인 백인 사회와 엔터 사업의 기득권인 메이저 레이블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켄드릭 라마는 자신의 무대를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또 인종적인 문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들로 채워나가기에 이른다. "HUMBLE." 공연 중 그는 흑인으로만 구성된 각기 다른 옷을 입은 백댄서들을 자신의 양옆에 배치시키며 미국의 성조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연출하며, 이후 이들을 반으로 나눠 서로를 등지게 한 뒤 여전히 미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종적인 갈등을 비판한다.

이후 그는 "Alright"의 뮤직비디오에서도 등장했던 가루수 아래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man at the garden"을 공연하고, 게임 컨트롤러로 보이는 세트 위에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한 댄서들과 함께 "peekaboo"를 공연한다.

리고 Uncle Sam은 이러한 공연을 보며 Scorekeeper라 불리는 인물에게 '목숨을 하나 깎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즉, 미국 정부를 나타내는 Uncle Sam과 흑인들을 상징하는 켄드릭 라마는 서로의 대척점에 있고, 그는 본 공연을 통해 그러한 문화적 차이를 설득하려는 — 혁명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다.

켄드릭 라마는 "Not Like Us"의 도입부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재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건 문화적 차이야, 내가 제대로 뒤엎겠어 / 5만 평의 땅과 노새 한 마리, 이건 음악보다 더 중요해.'

<To Pimp A Butterfly>에서 수차례 등장하기도 한 '40 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라는 표현은 노예 해방 이후 흑인들에게 지급되기로 약속되었던 5만 평의 땅과 노새 한 마리에 대한 배상 조치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Abraham Lincoln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후임 대통령인 Andrew Johnson 대통령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결국 흑인들에게 본 사건은 백인들의 배신으로 기억되고야 말았다. 즉, 켄드릭 라마는 본 공연을 통해 단순 음악이 아닌 더 깊은 의미와 상징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대망의 "Not Like Us"와 "tv off"가 재생되며 슈퍼볼 하프타임쇼는 끝을 맺는다.

다시 말해 켄드릭 라마가 본 공연에서 보여주려 했던 바는 흑인들의 문화, 그리고 여전히 미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종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것이다. 켄드릭 라마는 Uncle Sam이 요구한 '대중적인 공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음악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연을 선보인 것이다. 그렇기에 공연 직후 나오고 있는 '재미가 없었다', '<GNX> 수록곡들로만 채워져 있어 대중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필자는 다소 우습게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본 공연을 통해 켄드릭 라마는 지금도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 그리고?

과연 켄드릭 라마의 변화를 이제 모든 대중들이 받아들였을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아직 아니다. 여전히 국내외의 수많은  
힙합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켄드릭 라마의 행보에 아쉬움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고, 그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상한 현상은  
결코 아니다. <GNX>와 슈퍼볼 하프타임쇼가 '뉴-켄드릭 에라'의  
정점에 서있는 퍼포먼스였을지언정, 현재의 켄드릭 라마가  
선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기량이 담긴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켄드릭 라마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대중들마저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듯하다. 현재 켄드릭 라마는  
과거에 보여주었던 완벽주의적, 작가주의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내려놓은 상태이다. 대신 그에게는 불타는 창작욕과  
문화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았고, 그렇기에 앞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벌써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버린 그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본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되었다.  
분명 켄드릭 라마는 변했지만, 그는 여전히 힙합씬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변화한,  
새로운 켄드릭 라마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를 확신의 언어로 기술한다.

# w/HOM#20



## Editors' Pick

1 opa\*q 2 To Be Kind 3 Valentine's Day Freestyle '25 4 afraid 5 Ghostholding 6 Nobody Like You





## opa\*q

Rei Harakami

1999.02.24 / 감상주의

故 레이 하라카미(Rei Harakami)를 향한 흥미는 <부기팝 팬텀 OST>에 수록된 "Pone"를 향한 애청으로부터 시작된다. 컴필레이션 형식의 앨범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순수한 고요로만 채워진 곡이다. 언제 지나간 적이 있었는지도 모를 유년기 찰나의 꿈과 같으며, 도시 전설의 그녀가 내 곁에도 와준 것만 같은 아름다운 순간에 실제로는 그가 대신 있었다. 다른 작업물들도 비슷한 감성일까? 결과는 20% 정도만 일치했다. 몽글몽글한 앰비언트만을 고집하던 양반은 아니었다. 가령 <opa\*q>의 경우, "Chromatic Cliff"처럼 얼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트랙도 있지만, "flat" 시리즈처럼 출렁대는 댄스가 이상야릇함을, "v"처럼 기괴한 노이즈가 섬뜩함을 불러올 수

도 있다. "poof"도 포근하긴 하나, 부기팝이 아닌 어리바리한 외계 생명체가 어쩌다 맞은편에 불시착한 느낌이다. 그래도 "pone"를 포함해 이 모든 것들에도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미니멀리즘이다. 같은 IDM일지라도 도쿄의 것과는 여러모로 다르다. 이것이 교토의 것인가? 확실한 바로, 교토의 DIY 전자음악 씬은 하라카미의 아기자기한 <unrest>와 전원적인 <lust>를 한 데 품을 수 있는 곳이다. 그 중간다리에 있는 본작도 물론이겠지. 당신의 요상하고도 예쁜 신호 덩어리 덕분에 교토의 음악이 궁금해졌다!



## To Be Kind

Swans

2014.05.13 / 감상주의

스완즈(Swans)의 음악은 의식(rituals)이다. 2014년 바실리카 페스티벌에서 "I'm Just a Little Boy"를 합주하는 가운데 마이클 지라(Michael Gira)가 잠꼬대를 하듯,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리며 흐느적거린다. 그를 둘러싼 연주자들이 그의 혼령을 이끌어낸다. 그들과 관중이 접신한 영의 정체는 다름 아닌 유아다. 지라의 모든 무의식적 행위는 유아와 같으며, 매우 순수한 동시에 파괴적이다. <To Be Kind>의 앨범 커버 정중앙에 있는 아이는 혼령의 표상이자 파괴의 메타포다. 또한 <The Seer>에서 야수성을 표상한 들개의 다른 모습이다. 가혹한 삶의 편린들을 포착하던 어른이 짐승을 거칠 때 까지만 해도 그것은 폭력과 광기를 표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미완성

이라고 했던 이유는 다음 단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Chester Bennett의 유아적인 본질로부터 얻은 동질감은 그의 손안에 작은 신을 쥐게 했다("A Little God in My Hand). 그것과 물아일체가 됨으로써 완전무결한 상태의 산소("Oxygen")를 마시며 환희의 비명을 지르고, 거대한 자궁안에서 성모의 무한한 사랑과 따끔한 질책을 온몸으로 받는다("She Loves Us"). 비로소 파괴의 다음으로 나아간다. 2시간 만에 당도해 낸 그곳은 초월(transcendence)이다. 무아지경이로구나, 할렐루야.



## Valentine's Day Freestyle 25'

JPEGMAFIA

2025.02.14 / blvckmvtter

발렌타인 데이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심이 담긴 선물을 전한다. 피로 묶여진 관계도, 이성 간의 끌림으로 맺어진 사이도 아니지만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에도 사랑은 분명 존재한다. 이들은 다소 독특한, 동시에 꽤나 뻘한 '음악'이라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는 한다. 모던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주축을 담당했던, 이제는 씬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 자리잡은 제이펙마피아(JPEGMAFIA)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달했다. 그의 선물은 깔끔한 포장지에 빈틈없이 싸인 유명 브랜드 초콜릿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조급해보이고 두서없게 느껴지지만 정성과 특색이 담긴 수제 초콜릿에 가깝게 느껴진다. 디스와 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훑고 지나가는 프리스타일의

특징이 담긴 가사와 제이펙마피아의 특색이자 강점인 샘플링의 아름다움이 담긴 "Valentine's Day Freestyle 25'." 어쩌면 선물의 정석은 이런 게 아닐까?



## afraid

2hollis & Nate Sib

2025.01.30 / blvckmvtter

레이지 붐의 끝자락에 모습을 드러낸 투홀리스(2hollis)와 그의 포스트 레이지(Post-rage). 그들의 급격한 부상은 Z & 알파 세대의 감정적 결핍에 기반해있다. 디지털과 코로나에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쌓여가는 부정적 감정의 향연. 그 분출구가 되어주는 과하게 폭발적인 베이스와 하이퍼팝에 담긴 유니크한 반주류적 정서는 그들의 해소 욕구에 철저히 부합했고, 'Aura' 넘치는 투홀리스는 이들의 우상이 되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gold"와 "trauma"에서 보여주었던 포스트 레이지에서 벗어나, 다시금 일렉트로 팝의 길을 걷는 "afraid"는 그 장르적 성격이 달라졌음에도 투홀리스의 현 위상을 만들어준 핵심적 가치 — 즉, 위에서 언급한 결핍의 충족만큼은 여전히 성

취한다. 자신의 우상이 우리가 어릴 적 즐기던 게임들의 사운드를 샘플링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노래하며 추는 춤. 우리가 투홀리스의 광신도가 되지 않을 이유는 없어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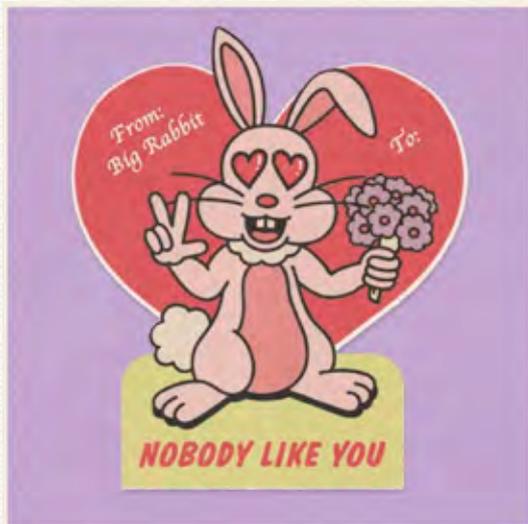
## Ghostholding

venting

2025.02.14 / 자카

현재 인디씬에서 제인 리무버(Jane Remover) 만큼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다리아코어, 포스트 락, 레이지를 비롯한 수많은 장르의 음악을 제작해온 바 있고, 그런 그녀가 리버브 페달과 일렉트릭 기타를 손에 든 채 벤처링(venting)이라는 새로운 슈게이징 프로젝트로 돌아왔다. 그러나 <Ghostholding>은 리스너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작품이다. "Spider"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노이즈 사운드, 또 "Dead forever"를 비롯한 번뜩이는 순간은 분명 존재하나 — 진부한 코드 진행이나 다소 부족한 프로덕션으로 이루어진 / 자가복제에 가까운 트랙들이 응집력 약하게 엮여져 있다는 것이 <Ghostholding>

의 가장 큰 단점이다. 물론 그녀만의 멜로디 메이킹 능력과 탁월한 보컬, 그리고 높은 장르 이해도로 그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타파해 내는 데에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애석하게도 본작은 <Census Designated>에서 두각 되었던 단점들로 가득 채워져있고 — 이렇다 할 알맹이 없이 51분이라는 기나긴 러닝타임 동안 비슷한 트랙들만을 나열해놓은 채 운영을 종료한다. 물론 제인 리무버의 역량이 너무나도 출중한 것은 사실이기에도, 본작만으로 앞으로의 그녀의 커리어를 결정할 수는 없는 법.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Revengeseekerz>에 더 큰 기대를 걸어 볼 뿐이다. 여전히 제인 리무버는 앨범 메이커로서의 자질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지만 말이다.



## Nobody Like You

Freddie Gibbs

2025.02.14 / 온암

지난 해 프레디 깁스(Freddie Gibbs)의 <You Only Die 1nce>는 실력 있는 래퍼의 존재가 랩 음반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할로윈 스페셜이었다. 차분한 재즈 힙합 비트 위에서 그는 로우톤의 라임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그의 음악 안에서 최고의 편곡자가 되었고, 랩 매니아들에게 Madlib이나 The Alchemist 없이도 그가 위대한 래퍼로 기억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런 그가 이번엔 발렌타인 데이에 싱글 'Nobody Like You'로 돌아왔다. 팬들의 성원에 따라 동명의 인터루드를 연장해 랩 트랙으로 개조한 이 곡은 여러모로 시의적절한 시점에 공개되었다. <Some \$exy Songs 4 U>의 토끼 캐릭터가 깁스의 캐릭터를 모방

했다는 의심을 바로 깁스 본인이 언급하며, 어떠한 징조가 포착된다고 깨달은 시점에 발표된 이 싱글은 그 제목부터 곡 너머의 한 허구적인 존재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세 번째 벌스에서 프레디는 랩 팬들에게 조롱받는 특정 소송을 언급하며 그가 캐나다 래퍼에게 좋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드러내지만, 그는 내면적 성찰과 그의 진실됨을 조명하는 데 보다 집중한다. 그리고 이 전략은 갱스터리즘이 돋보이는 그의 랩 스킬보다 그가 인격적으로 훨씬 거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w/HOM#20

---

**1 New** 감상주의 자카 moogsick SONGCHICO

**2 Full** 감상주의 온암 자카 moogsick SRUKSAN snxo

**3 Classics** 온암 ryuzimoto

**4 Feature** 감상주의 공ZA 자카 온암 moogsick SONGCHICO SRUKSAN snxo

**5 Editors' Pick** 감상주의 자카 온암 blvckmvtter

---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khlhomoofficial@gmail.com  
@hausofmatters

A person stands on a rooftop at night, illuminated by a strong red light. The person is wearing a dark dress and has their right arm raised. Below them is a building facade with windows and architectural details, also lit with red light. The overall scene is dark with a high-contrast red glow.

FROM HOUSE OF BALLOONS TO HURRY UP TOMORROW  
THANK YOU, THE WEEKND  
2011 ~ 2025

XO